금수강산

7

주체103(2014)
루계 제299호 월간

 ISSN 1727－9062

2. 허리띠를 조여매는 인민들을 생각하시며
북방길을 걸으시던 장군님 그 모습이여
마음속의 모진 아픔을 노래로 이겨내시며
총대를 다져주신 그 업적 잊을수 없네

3. 승리의 언덕에서 걸어온 길 뒤돌아보니
위인들의 한생우에 강국이 솟아올랐네
목숨같은 총대를 들고 가야 할 머나먼 길에
순금처럼 변함없이 우리 당 받들어가리

차 례

남조선의 전국민족민주운동련합 고문인 문익환목사를 접견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주체78(1989). 3)

한평생 조국의 통일을 위해

민족의 대국상을 당한 때로부터 어느덧 스무번째의 7월이 다가오고있다.

날이 갈수록 더욱 뜨거워만지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겨레는 그이의 생애를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다.

그럴수록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조국통일과 관련한 문건에 남기신 친필이 겨레의 가슴에 뜨겁게 안겨온다.

《김일성
1994. 7. 7.》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친필비

통일된 조국을 그려보시며 수령님께서 남기신 친필은 아홉글자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 한자한자의 글발에 조국통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수령님의 위대한 한생이 어리여있다.

조국통일은 위대한 수령님의 필생의 위업이였으며 절절한 념원이였다. 하기에 그이께서는 해방(주체34(1945)년 8월 15일)후 나라의 영구분렬을 막기 위하여 주체37(1948)년 북과 남의 정당, 사회단체대표자 련석회의로부터 시작하여 1994년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을 위하여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시며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다. 어느 하루, 어느 한시도 조국통일문제때문에 마음쓰지 않으신 날이 없는 수령님이시였다.

하나의 로선과 정책을 작성해도 통일을 생각하시고 경제사업을 지도하고 대외사업을 하여도 언제나 통일문제에 대해 마음쓰신 수령님,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그이께서 걸으신 길은 몇천, 몇만리이고 지새우신 밤은 그 얼마였으며 집필하신 로작들과 보아주신 문건들은 또 얼마인지 모른다.

그 나날에 그이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3대헌장은 통일위업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놓았다.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들을 체계화하고 집대성한 조국통일3대헌장은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다.

내외반통일세력들의 책동으로 하여 민족분렬의 위기가 심화되고있던 1970년대에 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7. 4공동성명을 채택하도록 하시여 겨레에게 크나큰 희망과 신심을 안겨주시였다.

주체61(1972)년 5월초 수령님께서는 북남고위급정치회담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에 온 남측대표를 만나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몸소 자리를 권하시고 북남사이에 접촉과 대화의 문이 열리고 고위급대표들이 직접 만나 의견을 나눌수 있게 된것은 조국통일문제해결에서 커다란 전진으로 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반드시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 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해결할것을 주장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구절마다에 애국애족의 뜻이 차넘치는 원칙이여서 남측대표는 거듭 자리에서 일어나 그이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3대원칙을 전적으로 찬동한다고, 자기측 최고당국자도 이에 찬성할것이라고 말씀드리였다.

통일의 뚜렷한 원칙과 기준을 세워준 조국통일3대원칙은 통일운동의 새로운 앙양의 길을 열

어놓았다.

그러나 하나의 민족으로 통일된 조국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려는 겨레의 지향과 거족적인 통일운동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엄중한 난관에 부딪치게 되였다.

미국과 남조선괴뢰집권세력들은 공화국의 《핵의혹》을 일으키면서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을 계단식으로 확대하였다.

민족의 머리우에 핵전쟁의 검은 구름이 드리우고있던 바로 그때 수령님께서는 주체82(1993)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회의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선포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회의에서 민족의 운명을 우려하는 사람이라면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공산주의자이건 민족주의자이건, 무산자이건 유산자이건, 무신론자이건 유신론자이건 모든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 단결하여야 하며 조국통일의 길을 함께 열어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민족대단결의 목표와 리념적기초, 단결의 원칙과 방도를 전면적으로 명시한 통일강령을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으로 공포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에서 민족의 대단결로 자주적이고 평화적이고 중립적인 통일국가를 창립할데 대하여서와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단결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받아안은 남조선인민들은 《민족운명개척의 옳바른 길을 밝힌 대헌장》, 《10대강령대로만 하면 우리 민족의 통일은 문제없다.》고 격정을 터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공정하고 순조롭게 실현할수 있는 길을 밝혀준 조국통일의 설계도이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북과 남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북과 남이 하나의 련방국가를 형성하는것이다.

그이께서는 북과 남이 같은 수의 대표들과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대표들로 최고민족련방회의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련방상설위원회를 조직하여 나라와 민족의 전반적리익과 관계되는 공동의 문제들을 토의결정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련방국가의 창립과 관련한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히시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이 실시하여야 할 10대시정방침을 제시하시였다. 10대시정방침에는 련방국가가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인민생활 등 모든 분야에서 실시하여야 할 시책들이 밝혀져있다.

그리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자주적이고 민주주의적이며 중립적이고 쁠럭불가담적이며 평화애호적인 나라로 되여야 한다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해빛은 그 어디에나

주체73(1984)년 8월말과 9월초, 례년에 없이 많은 비가 쏟아져내려 남조선의 여러 지역에 무서운 홍수가 휩쓸었다. 그로 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수많은 수재민이 생겨났다. 그무렵 평양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의 결정 제32호가 발표되였다.

《1. 서울을 비롯한 남조선의 수재지역 리재민들에게 쌀 5만석, 천 50만m, 세멘트 10만t, 기타 의약품을 구호물자로 보내기로 한다.

…》

이 결정을 두고 세계각계가 놀라움을 표시하였다. 그리고 남조선전역이 감격에 설레였다. 당시 미국과 일본은 남조선에 10만US$, 2만US$를 주었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하여도 백수십여년간의 국제적십자구제운동력사에 최고기록을 남긴 구제금은 주체72(1983)년에 스웨리예가 수해를 입은 인디아에 제공한 75만US$였다.

그러나 공화국의 구호물자는 1 800만US$에 해당한것이였다. 이것은 남조선당국이 발표한 수재민수를 놓고볼 때 세대당 쌀 250kg, 천은 17m씩 차례지며 세멘트는 60㎡짜리 살림집을 약 3만동이나 지을수 있는 량이였다.

바로 여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뜨거운 동포애가 깃들어있다.

그이께서는 남조선인민들이 홍수로 큰 피해를 입었다는것을 아신 때부터 밤잠을 이루지 못하시고 하루에도 몇번씩 그 피해상황을 알아보시였다. 그리고 수재민들의 생활을 충분히 안착시킬수 있도록 구호물자를 통이 크게 질적으로, 빠른 기간에 보내주도록 하시였다. 그를 위해 구호물자의 견본품과 포장형식, 수송과정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지도하시였다.

남조선수재민들에게 동포애적인 구호물자를 보내주고있는 공화국북반부인민들

그이의 뜻을 받들어 경애하는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남조선수재민들에게 구호물자를 보내주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하여 10분도미로 정미된 쌀과 천, 세멘트, 14종에 759지함의 의약품이 수백여대의 화물자동차와 십여척의 대형짐배들에 실려 남조선수재민들에게 가닿게 되였다.

돌이켜보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족분렬의 첫 기슭에서부터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남녘동포들을 위해 마음써오시였다.

해방직후 나라살림살이가 어려운 속에서도 남녘동포들의 생활을 걱정하시며 패망한 일제의 창고와 병영에서 회수한 수많은 전리품을 보내주도록 하시였으며 남조선인민들이 전기사정으로 하여 고충을 겪고있을 때에는 남조선전력수요의 70%이상이나 되는 전기를 보내주도록 하신 그이이시였다.

그이께서는 미제가 일으킨 조선전쟁으로 하여 나라와 민족의 생사운명을 판가리하던 시기에도 남녘겨레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주시였다.

전쟁이 일어난지 이틀후 그이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사위원회 제2차회의를 여시고 서울시가 해방된후 인민정권의 수립문제, 시민들의 생명재산을 보호할데 대한 문제, 시민들에 대한 음료수공급문제, 인민군대의 병원들에서 서울시민들에게 의료상방조를 줄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그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가르쳐주시였다.

남조선수재민들에게 보내는 구호물자를 넘겨주고있다.

참으로 그이의 사랑속에 남조선인민들을 위한 많은 실천적조치들이 수십년세월을 이어오며 끊임없이 취해졌다.

남조선의 실업자들과 고아들을 구원하기 위해 흰쌀 15만석, 직물 500만m, 수산물 1만t, 신발 400만컬레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고아들을 전적으로 맡아 양육할데 대한 내각결정 채택, 최고인민회의 회의에서 남조선인민들이 진 빚을 모두 공화국정부가 갚아주고 남조선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700척의 기계배와 모든 돛배들에 놓을 디젤기관 등을 보내줄데 대한 조치 발표, 남조선의 절량농민들을 위해 10만석의 구호미를 보내줄데 대한 내각결정 채택…

정녕 남녘동포들을 위하시는 수령님의 마음은 언제나 변함이 없었다. 한민족이라면 그가 어디에 살건 따뜻이 보살펴주신 그이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온 민족이 통일된 강산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념원이 간직되여있었다.

만물을 자래우는 해빛은 그 어디에나 밝게 비친다.

그이의 사랑은 오늘도 남녘인민들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있을것이다.

본사기자 조선일

는데 대해 지적되여있다. 온 민족이 단결하고 북과 남이 합작하여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고 조국을 통일하면 우리 나라는 찬란한 민족문화와 위력한 민족경제를 가진 자주독립국가로서 당당한 존엄과 권위를 가지고 세계무대에 등장할것이며 삼천리강토우에 더욱 부강하고 번영하는 인민의 락원을 건설하게 될것이다.

그이의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발표되자마자 우리 민족은 물론 세계의 전폭적인 지지와 찬동을 불러일으켰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헌장은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오래동안 존재하여온 우리 나라의 현실적조건과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에 맞게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방도를 밝혀주고있다. 조국통일3대헌장이 마련됨으로써 우리 민족은 나라의 통일을 자기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리론실천적무기를 가지게 되였으며 뚜렷한 목표와 방향,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되였다.

정녕 위대한 수령님은 생애의 마지막박동까지도 조국통일위업실현을 위해 바치신 통일의 구성, 민족의 어버이이시였다.

그이께서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쌓으신 불멸의 업적은 우리 민족에게 남기신 가장 고귀한 유산이며 민족문제, 통일문제의 해결을 확고히 담보하는 밑천으로서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것이다.

삼천리강토에 펼쳐진 6. 15통일시대와 우리민족끼리기치밑에 추진되고있는 통일운동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한생을 바쳐 이룩하신 조국통일사상과 업적이 어려있다.

오늘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여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전진하고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를 받들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삼천리강토우에 부강번영하는 통일강성국가를 일떠세울것이다.

본사기자

그이의 선생은 인민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한평생 인민을 선생으로 삼으시고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시였다.

언제인가 수령님께서는 깊은 추억과 잊을수 없는 회포속에 자신의 한생을 돌이켜보며 말씀하시였다.

《파란만장의 인생항로에서 내가 키를 잃지 않고 꿋꿋이 살고 싸워나갈수 있은것은 오로지 동지들과 인민들이 나를 진심으로 믿고 도와준 덕이였다.

〈이민위천〉, 인민을 하늘같이 여긴다는 이것이 나의 지론이고 좌우명이였다.》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업적은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생을 바치신것이다.

오직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고 그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오셨기에 그이께서는 혁명의 길에서 언제나 승리만을 거두실수 있었다.

우리 인민의 사회주의건설위업은 전인미답의 길을 개척해야 하는 간고하고도 복잡한 투쟁이였다. 수령님께서 그 간고하고도 복잡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세인을 경탄시키는 기적을 창조하실수 있은것은 인민들속에 들어가시는것을 생활의 철칙으로 삼으시였기때문이다.

수령님께서는 그 과정에 인민이야말로 선생이며 혁명을 추동하는 기본동력이라는 관점을 가지게 되시였다. 그이께서는 언제나 그것을 절대시하시였으며 그 관점으로 인민들속에 들어가시였다.

그리하여 수령님께서는 혁명활동을 시작하신 첫 시기부터 《조선사람은 비록 셋이 모여도 적들과 싸워야 한다.》라고 말한 차천리로인도 만나게 되시였고 한몸을 내대여 그이를 희생적으로 구원해드린 교하의 아주머니도 만나실수 있었다.

해방직후와 조국해방전쟁시기, 전후복구건설시기와 사회주의건설시기 등 혁명생애의 전기간 그이께서는 인민들속에 들어가시여 그들과 무릎을 마주하시고 나아갈 길을 의논하시였으며 인민대중을 불러일으켜 사회주의건설을 진척시켜나가시였다.

그이께서는 국가정책 하나도, 인민경제발전계획도 다 인민들속에 들어가시여 대중의 의견을 들으시고 그에 기초하여 세우시였다.

전후 나라의 형편이 매우 어려웠을 때였다. 모든것이 파괴되고 어디에서나 요구하는것은 철강재였다.

그러하던 주체45(1956)년 12월, 강선제강소(당시)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동자들과 마주앉으시여 강재 1만t만 더 생산하면 나라가 허리를 펴겠다고 하시며 허심탄회하게 그 생산방도를 토의하시였다. 그때 로동자들은 수령님앞에 철강재를 더 생산해낼수 있는 가능성과 예비를 하나하나 찾아내여 증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킬 맹세를 다지였다.

결국 그들은 한사람같이 일떠서 6만t능력의 분괴압연기에서 1만t이 아니라 12만t의 강재를 더 생산해내고야말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52(1963)년 9월 문덕군 룡오협동농장을 찾으시였을 때에도 그러하였다.

수령님께서는 농장에서 논벼종자를 과학적으로 뿌리고 충실한 모를 길러내여 정보당 수확고를 높인 사실을 알게 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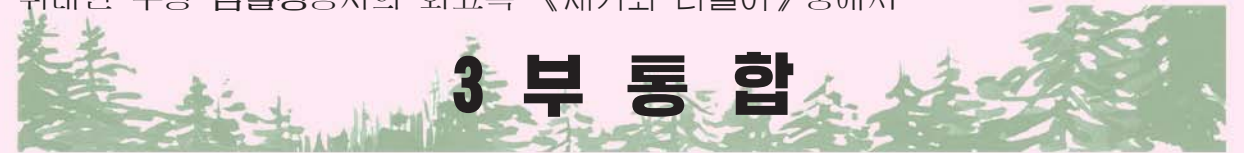
그이께서는 그것이 너무도 기쁘시여 그후 진행된 전국농업대회에서 그 농장의 경험을 전국에 일반화하도록 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평생토록 인민행렬차를 타시고 인민을 찾아 현지지도의 길을 걷고걸으시였다.

이 세상에 **김일성**대원수님처럼 한평생 오로지 조국과 인민을 위해 궂은길, 마른길을 가리지 않으시고 걷고걸으신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인간은 없다.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며 이 땅우에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강국을 세워주신 수령님의 업적은 해와 달이 다하도록 영원히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3부통합

1920년대는 총적으로 볼 때 반일애국력량의 단일전선에로의 통합촉성기였다고 말할수 있다. 민족의 전도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선각자들과 애국지사들은 독립의 기초가 반일력량의 통일단결에 있음을 확신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로씨야에서의 사회주의10월혁명과 3. 1인민봉기의 영향밑에서 새 사조의 보급과 함께 급속히 태여난 여러개의 로동운동단체들은 1920년대 중기에 와서 조선로농총동맹으로 통합되였다. 반일애국세력을 한데 묶어세우기 위한 작업은 민족주의진영에서도 진행되였다.

1927년에는 민족단일당조직의 기운이 무르익어가는 가운데 공산주의진영과 민족주의진영의 공동전선기관으로 신간회가 창립되여 그 산하에 수만명의 회원들을 집결시키기 시작하였다.

반일애국력량의 통합을 위한 운동은 독립운동의 책원지로 전환된 만주지방에서도 활발하게 전개되였다. 《한일합병》직후부터 만주지방에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군소독립운동단체들은 무수한 리합집산과정을 거쳐 1925년경까지는 대체로 정의부, 신민부, 참의부의 3부로 나뉘여져 각각 독자적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자기 단체의 관할구역에 금을 그어놓고 다른 단체와의 협동적련계도 없이 중세기의 소공국들처럼 서로 등을 지고 할거하던 3부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의 거듭되는 공세앞에서 각개격파당할 위험에 처하여있었다. 훈춘사건과 흥경사건, 고마령사건을 비롯한 일본군의 련속되는 대학살작전과 《미쯔야협정》으로 만주지방의 독립군단체들은 큰 타격을 받았다.

봉오골전투와 청산리전투에서 대참패를 당한후부터 일본군은 독립군의 무장활동을 견제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병력을 증강하였고 일본군 한명이 죽으면 조선사람 열명을 죽이는 간악한 심리살륙전으로 성장기에 있던 독립군을 피동에 몰아넣었다.

이러한 사태하에서 패권다툼에 열을 올리던 각 부의 지도자들은 군앞에 조성된 난국을 해소하기 위한 타개책으로 독립운동단체들의 통합을 모색하지 않을수 없었다.

3부가 태여난 초시기부터 독립운동의 선각자들은 통합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였다.

그 당시 3부는 관할구역을 넓히기 위한 경쟁에 쓸데없는 정력을 소모하면서 서로 질시하고 반목하는 상태에 놓여있었다. 3부의 패권싸움은 이따금 가슴아픈 충돌과 류혈도 빚어냈다.

나는 1925년 여름에 이미 3부의 지도자들이 무송에 모여 아버지가 사회하는 큰 규모의 회의를 열고 통합실현의 방도에 대해 진지하게 토의하는것을 목격하였다. 회의는 무송과 말리허, 양지촌 세곳에서 장소를 옮겨가며 열흘동안이나 진행되였다. 이 회의의 결과로 나온것이 바로 민족단체련합촉진회였다.

민족단체련합촉진회에 망라된 인사들은 민족단일당결성을 위한 준비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각파 지도자들과의 끊임없는 련계밑에 재만조선동포의 자치문제와 혁명전선의 통합을 위한 회의를 여러차례에 걸쳐 진행하였다.

장소를 바꿔가며 회의를 거듭하는 과정에 《왕바사건》이라는 소설같은 사건도 생기였다.

그 당시 김동삼, 최동오, 현묵관, 심룡준, 림병무, 김돈, 리연, 송상하를 비롯한 3부의 지도자들은 신안툰에 모여 통합회의를 하고있었다. 신안툰은 길장철도에서 서남쪽으로 30리쯤되는 곳에 자리잡고있는 동네인데 길림, 흥경, 화전과 더불어 만주에서 몇개 안되는 정치운동의 책원지였다.

3부합작회의의 기밀을 내탐한 일본령사관경찰에서는 평민으로 가장한 다섯명의 밀정들을 현지에 파견하였다.

밀정들은 신안툰근처의 동향수구부락까지 와서 자라잡이를 하는척 하면서 3부합작회의과정을 탐지하였다. 그러다가 마을청년들에게 정체가 탄로되여 모조리 처단되였다. 청년들은 밀정들을 한끈에 묶어 송화강에 수장하였다.

길림주재 일본령사관경찰에서는 중국 경무청에 이 사건의

전말을 알리고 조선사람들이 일본량민을 살해하였다는 리유하에 사건현장과 신안둔에 대한 공동수사를 강요하였다. 이 사실이 경무청에 통역으로 근무하고있던 오인화라는 사람에 의해 3부합작회의 대표들에게 통보되였다. 대표들은 일단 휴회를 선언하고 신안툰을 떠났다.

이것을 세칭 《왕바사건》이라고 한다. 왕바란 중국의 속어로 자라라는 뜻이다.

독립운동단체들의 통합을 위한 3부의 회의는 무수한 난관과 우여곡절을 동반하였다. 3부합작을 두려워하는 일제의 집요한 미행과 파괴책동이 첫번째 난관이라면 그보다 더 큰 난관은 각 단체 내부에 생긴 파벌들의 대립이였다. 정의부는 촉성회파와 협의회파로 분렬되여있었고 신민부는 군정파와 민정파로 대립되여있었으며 참의부는 촉성회지지파와 협의회지지파로 갈라져 옥신각신하였다. 김동삼, 리청천, 리종건을 비롯한 촉성회측은 정의부에서 탈퇴하였고 김좌진, 황학수를 우두머리로 한 군정파도 신민부와 결별하였다.

3부통합회의가 제일 자주 소집된 곳은 길림이였다.

길림의 상의가에는 조선사람이 경영하는 복흥태라는 정미소가 있었다. 길림에 있는 독립운동자들은 그 정미소사무실을 침실과 사무실로 리용하고있었다. 남만과 북만, 동만에서 오가는 독립운동자들까지도 그곳을 단골방으로 자주 리용하였기때문에 복흥태는 어느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

바로 여기서 3부통합회의가 해를 넘기며 열리고있었다.

복흥태정미소가 육문중학교로 오가는 길목에 있었으므로 나는 회의에 참가한 대표들과 자주 접촉할수 있는 기회를 가지였다.

그 정미소의 주인은 공산주의를 동경하는 민족주의자로서 남의 쌀을 찧어주고 도정료를 받아서 밥술이나 먹고 살아가는 소기업가였다.

어느날 그 정미소에 들리니 내가 아는 령감들이 김형직선생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나를 김좌진, 김동삼, 심룡준을 비롯한 3부통합회의 대표들에게 소개하는것이였다. 그렇게 소개해놓고는 롱담삼아 《이 사람은 우리하고 사상이 달라.》하고 꼭지를 달아놓았다.

나는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난합니다. 선생님들도 조선독립을 하자는것이고 저도 조선독립을 하자는것인데 사상이 다를리 있습니까.》라고 말했다. 내가 그런 말을 하자 그들은 자네들이 사회주의운동을 하는것 같아서 그런다고 하였다.

공산주의선전을 하기에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

나는 그들에게 《지금 청년들이 공산주의운동을 하는것은 하나의 세계적추세이고 그것을 지향하는것이 청년들인데 남들이 다하는 공산주의를 왜 조선청년들이라고 안하겠습니까. 우리가 새것을 보지 않고 계속 낡은것에만 매여달린다면 조선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생님들은 선생님들이고 또 우리는 세대가 다른데 선생님들이 청년들의 심정을 무시하면 곤난합니다.》하고 들이대였다. 내가 이런 말을 하자 령감들은《자네가 아무것을 하든 우린 상관하지 않겠네. 설마하니 자네들이 우리야 타도하겠나.》라고 하는것이였다.

나는 그들에게 무엇을 보고 우리 청년들이 선생님들을 타도하리라고 생각하는가고 점잖게 말하였다.

이와 비슷한 일은 그후에도 몇번 있었다.

가며오며 이따금씩 들려보아도 3부가 통합했다는 소식은 들을수 없었다. 독립군의 지도자들은 짜증이 날 지경으로 회의를 질질 끌고있었다.

나는 3부의 지도자들과 접촉하는 과정에 그들의 생활내막을 알게 되였는데 그 생활이라는것이 고루하고 따분하기 그지없었다.

길림성밖 조양문근처에 삼풍잔이라는 간판을 단 려관이 있었다는것은 앞에서도 말한바가 있다. 3부통합회의가 휴회로 들어갈 때마다 독립군의 지도간부들은 이 려관에 모여 다른 파를 견제하기 위한 모의를 하였다.

그 려관가까이에는 우리가 대중교양장소로 리용하고있던 손정도의 례배당이 있었다. 그러다나니 나도 자연히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같은 때면 이 삼풍잔에 모인 독립군상층의 생활을 엿볼수가 있었다.

그들이 정해놓고 쓰는 방에는 손때가 올라 반질반질한 장기판이 늘 놓여있었다. 독립군들이 심심해한다고 려관주인이 특별히 만들어온 장기판이였다.

독립군령감들은 그 방에서 진종일 입씨름을 하든가 장훈이야 멍훈이야 하면서 세월을 보냈다.

삼풍려관 주인들은 독립군거두들을 섬기느라고 뽕이 빠질 지경이였다. 그들을 치를 때는 태풍합정미소에서 찧어내는 쌀가운데서 제일 좋은 쌀을 골라 밥을 해먹이군 하였으며 고기나 두부나 물고기같은 반찬도 떨구지 않았다.

독립군지휘관들은 매일 장기놀이로 밤을 밝히면서도 주인들한테서 밤참으로 메밀국수를 꼭꼭 대접받군 하였다.

그 집 딸이 하는 말이 그것도 다 공짜라는것이였다. 그는 밤마다 담배심부름, 술심부름을 하느라고 잠조차 제대로 잘수 없다고 하였다. 그가 한번은 자기 어머니에게 《어머니, 우리가 이 모양으로 저 사람들을 섬기다가는 석달도 못가서 거지가 되겠어요.》라고 하였더니 그 어머니는 오히려 그를 꾸짖으면서 《나라를 찾자고 싸우는 분들인데 무엇을 아끼겠니. 이제 준비가 되면 싸우러 떠날게다. 다시는 그런 말을 입밖에 내지 말아라.》고 하더라는것이였다.

(다음호에 계속)

그 자욱은 오늘도 불멸하다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지원의 사상을 안으시고 력사의 새벽길을 걸으신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김형직선생님,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오로지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시였다.

김형직선생님의 탄생 120돐을 맞이하고있는 조국과 인민은 숭엄한 감정에 휩싸여있다.

일제의 발굽밑에 짓밟혀 신음하는 조선인민에게 민족해방의 밝은 래일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지원의 사상을 혁명의 좌우명으로, 일생의 신조로 삼으시고 반일민족해방운동의 진두에 서신 김형직선생님이시였다.

지원의 사상은 조국과 민족을 위한 투쟁의 길에서 참된 보람과 행복을 찾는 혁명적인생관이며 대를 이어 싸워서라도 기어이 나라의 독립을 이룩해야 한다는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이다.

지원의 사상에는 조선의 독립은 조선사람자신의 힘으로 이룩해야 한다는 민족자주정신과 그 어떤 난관과 시련이 앞을 가로막아도 굴함없이 싸워 일제를 때려부시고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이룩하며 혁명을 계속하여 부강한 새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는 숭고한 뜻이 담겨져있다.

김형직선생님께서 내놓으신 지원의 사상은 그 거대한 견인력으로 하여 당시 옳바른 투쟁방향과 방도를 찾아 모대기고있던 독립운동자들과 조선인민에게 민족재생의 희망과 신심을 안겨준 홰불로 되였으며 침체에 빠진 반일민족해방운동을 위기에서 건져내고 그 발전을 힘있게 추동한 향도적기치로 되였다.

선생님께서는 지원의 사상에 기초하여 애국적인 교육활동을 벌리시는 한편 혁명투쟁에서 뜻을 같이할 동지들을 묶어세우시였고 광범한 인민대중을 계몽하는 사업도 적극 추진시키시였다.

평안남도 강동군 고읍면 동삼리 내동마을(오늘의 평양시 강동군 봉화리)에 혁명활동의 중심지를 정하시고 명신학교에서 교편을 잡으신 선생님께서는 후대교육에 힘쓰시는 한편 평양, 강동, 순천, 성천, 청수, 창성, 은률 등지에서 활동하시면서 지하혁명조직결성사업을 밀고나가시였다. 그리하여 주체6(1917)년 3월 23일 조선국민회를 결성하시였다.

조선국민회의 목적은 전체 조선민족이 일치단결하여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며 참다운 문명국가를 세우는것이였다.

조선국민회는 조직된지 얼마 안되여 국내각지는 물론 중국의 장백, 길림, 무송, 베이징, 상해, 림강 등 국외에까지 확대되였다.

주체6(1917)년 가을 100여명의 조선국민회 회원들과 함께 일제경찰에 검거되신 그이께서는 평양감옥에서 옥중투쟁을 벌리시는 한편 앞으로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을 가일층 더 발전시키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방도를 모색하시였다.

주체7(1918)년 가을 감옥에서 나오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옥중에서 쇠약해지신 몸을 추세울 사이도 없이 반일민족해방운동의 새로운 발전을 위하여 또다시 투쟁의 길에 나서시였다.

김형직선생님의 지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민족해방투쟁을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무산혁명에로의 방향전환을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게 되였다.

지원의 사상을 안으시고 력사의 새벽길을 걸으신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자욱은 오늘도 강성국가건설에 떨쳐나선 군대와 인민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천만군민은 원수님만 따른다

노래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가 조국의 하늘가에 울려퍼진다.

이 조선 이끄는 힘 억세다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안고
우리가 바라던 꿈과 리상
모두다 꽃펴주실 분
위대한 **김정은**동지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
위대한 **김정은**동지 당신께 충실하리라
…

부르면 부를수록 두해전 7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로 높이 받들어모시던 그날의 감격이 가슴을 뜨겁게 하여준다.

두해, 민족의 력사에서 길지 않은 이 나날에 자기들이 얼마나 위대한 령장을 모시였으며 얼마나 자애로운 어버이의 품에서 행복을 누리고있는가를 절감한 인민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걸으신 선군의 길, 자주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끝까지 이어나가며 장군님의 유훈을 찬란한 현실로 꽃피우고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그 나날 천만군민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의지에 떠받들리워 굳건해질 백두산혁명강군의 미래를 더욱 확신하고 승리의 신심에 넘쳐 주체혁명위업완성의 한길로 더 힘차게 나아갈 의지를 새겨안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총대중시, 군사중시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져나가도록 하시고 인민군군인들을 찾아 선군의 길을 걷고걸으시였다. 그이께서는 미제가 우리의 합법적인 평화적위성발사를 걸고들며 전쟁책동, 제재책동에 악랄하게 미쳐날뛸 때에도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을 지켜가는데서 나서는 강령적지침들을 명철하게 제시하시였다.

어느 한 인민군대련합부대를 찾으시여 전쟁은 언제 한다고 광고를 내지 않는다는것을 한시도 잊지 말고 부대의 싸움준비에 최대의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그이이시다. 그이의 말씀은 이곳 군인들만이 아닌 전체 인민군장병들에게 침략자들이 사회주의조국의 한치의 땅이라도 침범한다면 무자비한 불벼락을 안길 만만한 배심과 의지를 안겨주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을 결사옹위해갈 불타는 결의로 심장을 끓이고있는 해병들

적진까지의 거리가 불과 350m밖에 되지 않는 위험천만한 까칠봉초소를 찾으시였을 때에는 동무들의 뒤에는 고향으로 가는 길이 있고 고향에는 사랑하는 부모형제들이 살고있다고, 언제나 이것을 잊지 말라고 그리고 이곳은 결코 외진 초소가 아니라고, 최고사령관이 동무들과 늘 함께 있다고 하시며 오성산에 자주 찾아오겠다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숭고한 믿음과 사랑은 인민군군인들을 펄펄 나는 일당백싸움군들로 자라나게 한 정신적자양분이였고 힘의 원동력이였다.

그뿐이 아니다.

수도 평양에서 저 멀리 산골군에 이르기까지 조국땅 그 어디나 찾고찾으시여 평범한 인민들에게 돌려주시는 다심한 사랑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적풍모를 후덥게 새겨주고있다.

우리 인민을 행복의 절정에 올려세워주실 원대한 포부와 확고한 의지를 안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완공을 앞둔 창조물들을 돌아보실 때마다 이제 여기서 인민의 웃음소리가 넘쳐날 것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마음이 흐뭇해진다고, 이런 멋에 혁명을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은하과학자거리,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 류경구강병원, 마식령스키장…

원수님께서는 새집들이한 평범한 근로자들의 가정을 찾으시여 축배를 부어주시고 인민들이 리용할 유원지의 의자모양새까지도 몸소 그림으로 그려주시였으며 아이들을 위한 현대적인 의료봉사기지도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하시기 위하여 비내리는 건설장의 진창길을 앞장에서 걸으시였다.

그토록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고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시며 인민들과 한치의 간격도 없이 생활하시는 분, 이 땅에 생을 둔 모든 사람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주시고 마음속 그늘도 다 가셔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인민은 삶의 태양으로, 온 나라 대가정의 자애로운 어버이로 우러러 높이 모시고 충정다해 받들며 따르고있다.

본사기자

대중의 정신력은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

지금 조국에서는 천만군민의 무궁무진한 정신력이 천백배로 분출되여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전례없는 기적과 위훈이 창조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혁명하는 당에 있어서 가장 위력한 무기는 사상이며 또한 유일한 무기도 사상입니다.》

대중을 발동시키는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은 바로 정신력, 사상이다.

돌이켜보면 적수공권으로 시작한 조선혁명에서 유일무이한 무기는 위대한 혁명사상이였다.

일제의 군사적강점으로부터 조선을 해방하기 위한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을 벌린 조선의 혁명가들은 주체사상의 첫 체현자들이였다. 그들은 국가적후방도 정규군의 지원도 없었지만 자체의 힘으로 무기와 폭탄을 만들어냈고 상상을 초월하는 시련과 난관들을 이겨나갔다.

항일혁명의 나날에 마련된 일심단결의 정신과 수령결사옹위정신은 조선인민의 정신력의 최고정화로, 근본핵으로 되였다. 그리고 수령의 사상과 로선을 결사관철하는 정신, 강한 민족자존의 정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 미래를 사랑하는 정신과 혁명적락관주의정신 등은 조선인민의 정신력의 중요한 내용들을 이루게 되였다.

조선의 혁명가들은 주체사상을 자기의 확고한 지도사상으로 틀어쥐고 동지를 얻고 무기도 해결하였으며 사상의 힘으로 제국주의강적들을 타승하고 부강한 사회주의를 건설하였다.

그 어느 나라, 그 어느 당의 력사에도 조선혁명과 같이 첫걸음부터 자기의 확고한 지도사상을 가지고 시작한 혁명, 사상을 위대한 투쟁과 변혁의 힘으로 전환시킨 혁명은 없다.

사실상 조선혁명의 전 로정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혁명사상이 안고있는 진리의 힘을 남김없이 발양시키기 위한 사상전의 력사였다고 말할수 있다.

조선혁명에서는 사상사업이 언제나 첫째가는 중대사로 나서고 혁명의 개척기에 벌써 사상사업의 위대한 전통이 마련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투쟁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인민대중속에 들어가시여 대중에게 의거

하여 투쟁하는 참다운 혁명의 길을 걸으시였으며 혁명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을 교양하고 조직동원하여야 혁명에서 승리할수 있다는 진리를 밝히시였다. 그리고 혁명투쟁의 실천적경험과 교훈에 기초하여 새로운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내놓으시였다.

지난 세기 말엽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붕괴되고 자본주의가 복귀된것을 기화로 제국주의 대변자들은 《사회주의종말》을 요란스럽게 제창하였다.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에 대한 훼방은 허용될수 없다》,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사상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수적요구이다》 등의 로작들을 내놓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사상을 홀시하면 망하고 사상을 틀어쥐면 승리한다는것을 력사의 진리로 확증하여주시고 사회주의재건운동에서 사상의 무기를 확고히 틀어쥐고나갈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동방의 크지 않은 나라인 조선이 미국과 당당히 맞서 자기의 자주권과 존엄을 빛내여올수 있은것은 혁명령도의 전기간 사상사업을 확고히 앞세우시고 인민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만사를 해결하여오신 대원수님들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다.

조선로동당은 군대와 인민의 정신력을 앙양시켜 혁명의 승패와 진퇴를 판가리하는 시련의 고비를 일대 고조기로 전환시켰으며 사상사업에서 전환이 일어날 때마다 큰 산을 하나씩 넘어왔다.

사상의 힘으로 혁명의 전환적국면을 열어온 조선로동당의 력사에서 지금으로부터 40년전 위대한 장군님께서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신 조선로동당 제3차 사상일군대회는 특별히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

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의 지도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신것은 조선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진로를 뚜렷이 명시하고 그 수행에로 천만군민을 총궐기시킨 정치적사변이였다.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는 력사적인 진군길에서 혁명적당건설력사상 처음으로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실현한 강위력한 정치적참모부, 로동당의 붉은 기발을 제일군기로 높이 들고나가는 불패의 혁명무력, 일심단결된 전투대오가 자라나게 되였다.

력사는 사대와 교조의 뿌리가 깊숙이 박혀있던 조국땅우에 어떻게 자주, 자립, 자위의 강국이 일떠섰으며 제국주의의 악랄한 고립압살책동에도 끄떡없는 사회주의강경보루가 솟아올랐는가를 똑똑히 보여주었다.

인류가 **김일성—김정일**주의에서 자기들이 나아갈 길을 찾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대중을 발동시키는 힘은 그들의 정신력, 사상이며 인민대중중심의 사상, 자주의 사상은 참된 자유와 행복을 지향하는 인민들의 넋으로, 투쟁의 기발로 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대중의 정신력은 그들을 불러일으키는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이며 사상의 힘은 영원하다. 사상의 힘으로 혁명하며 전진해나가는 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다.

본사기자 유선화

상식

활쏘기경기와 그 유래

활쏘기경기는 활과 화살을 가지고 한자리에서 서로 다른 거리의 고정목표를 쏘아맞히거나 이동하면서 쏘아맞힌 점수에 의하여 승부를 가르는 체육종목이다.

우리 나라에서 활쏘기는 먼 옛날부터 진행되여왔다. 애국심이 높고 용감한 우리 인민들은 활쏘기를 나라의 방위와 몸과 마음을 단련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삼았으며 그것을 국가적인 일로 장려하였다. 그리하여 활쏘기는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전통적인 민족오락으로 널리 진행되여왔다.

고구려시기에는 주로 말을 타고 활로 짐승을 쏘아잡거나 고정된 기둥우에 달아놓은 과녁을 쏘아떨구는 내기를 많이 하였다.

14세기 말경부터는 경기화되여 일정한 거리에 과녁을 세우고 제정된 수의 화살을 쏘아맞힌 수에 의하여 승부를 갈랐다.

세계적범위에서 활쏘기경기가 급속히 발전하기 시작한것은 18세기말—19세기초이다. 이 시기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활쏘기단체가 무어지고 나라들간에 경기도 진행되였다.

1931년에는 국제활쏘기련맹(FITA)이 창립되였다. 국제활쏘기련맹이 주최하는 큰 국제경기는 올림픽경기대회와 2년에 한번씩 진행하는 세계선수권대회이다. 우리 나라는 1961년 8월에 국제활쏘기련맹에 가맹하였다.

활쏘기가 세계적범위로 급속히 보급발전되면서 경기종목도 늘어나고있다.

활쏘기경기에는 과녁활쏘기경기, 실내활쏘기경기 등이 있다. 보통 활쏘기경기라고 하면 과녁활쏘기경기를 념두에 둔다.

우리 나라 활쏘기선수들은 세계활쏘기선수권대회를 비롯하여 여러 국제경기에 참가하여 좋은 경기성적을 보여주었다. 제28차 세계활쏘기선수권대회에서 우리 나라 선수들은 단체 2위, 개인종합 3위를 하였으며 제9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단체 2위, 개인종합 1위를 하는 등 여러 경기에서 순위권내에 들군 하였다.

민족의 안전과 평화수호

오늘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앞에 나서는 중대한 과업은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하는것이다.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하는것은 조국통일운동의 승리적전진을 이룩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그것은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하는것이 조국통일운동의 주체인 조선민족의 생존과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이기때문이다.

주체가 없는 사회적운동이 있을수 없는것과 마찬가지로 주체가 없는 통일운동에 대해서도 생각할수 없다.

조국통일운동의 주체는 바로 조선민족이다. 통일을 원하는것도 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힘을 가지고있는것도 조선민족이다.

그런데 오늘 조선반도에서는 외세에 의해 강요되는 핵전쟁위협으로 하여 조국통일의 주체인 민족의 안전이 엄중히 위협당하는 심각한 사태가 빚어지고있다.

전쟁의 포성이 멎은지도 이제는 60년이 넘었으나 조국땅에는 아직도 공고한 평화가 깃들지 못하고있다. 오히려 군사적대결과 긴장이 더욱 격화되고 다시 전쟁이 터질수 있는 위험도 날을 따라 커가고있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매일과 같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핵전쟁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여 북침핵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고있다. 이로 하여 사소한 우발적인 군사적충돌도 쉽게 전면전쟁으로 번질수 있는 일촉즉발의 첨예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이제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면 그것은 불피코 핵전쟁으로 번져져 민족의 머리우에 엄청난 핵재난을 들씌우게 되고 조국통일운동은 자기의 주체를 잃게 된다.

그러므로 전체 조선민족이 주체가 되여 외세에 의하여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대대손손 민족의 번영을 이룩해나가자면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하루빨리 제거하고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여야 한다. 오늘 공화국정부가 민족의 안전과 평화수호의 구호를 높이 들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일관하게 벌리고있는것은 바로 이때문이다.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하는것이 조국통일운동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북과 남이 단결과 협력을 강화하여 통일운동을 줄기차게 밀고나갈수 있는 유리한 환경과 조건을 마련하기때문이다.

북과 남, 온 민족의 화해와 단합이자 조국통일이며 민족적대단결과 협력은 평화를 전제로 한다.

서로가 상대방에게 총부리를 겨누고있고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긴박한 정세속에서 서로 마주앉아 허심탄회하게 통일문제를 론의할수 없으며 북과 남의 모든 력량을 총동원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사업에로 지향시켜나갈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지난 시기 미제와 그 추종세력의 무모한 전쟁소동으로 말미암아 여러 분야에서 좋게 발전하던 북남관계가 대결과 전쟁국면으로 번져지고 모든 련계가 전면 차단되지 않으면 안되였던 사실들, 민족의 자주적발전과 조국통일, 민족번영에 이바지할 막대한 인적, 물질적재부들이 외세에게 어부지리를 주고 북남대결에 소모되고있는 사실들이 이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북과 남의 전체 조선민족이 진정으로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고 부강번영하는 통일조국을 건설하는 길로 나가자면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위험부터 철저히 제거하여야 한다. 민족의 안전과 나라의 평화가 확고히 보장되여야 평화적환경속에서 북남사이의 순조로운 래왕과 접촉이 이루어질수 있고 민족의 단합과 협력이 원만히 진행될수 있으며 그만큼 조국통일이 앞당겨지게 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의 안전과 평화수호를 조국통일운동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중대한 민족사적과업으로 내세우고 내외호전세력들의 온갖 대결과 전쟁책동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그것을 단호히 짓부셔버려야 한다.

전체 조선민족은 거족적인 반전평화수호투쟁으로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굳건히 수호해나감으로써 삼천리조국강토에서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야 할것이다.

사회과학원 연구사 심청룡

제품의 가지수를 늘여나간다

우리는 얼마전 아득히 펼쳐진 사과밭속에 자리잡은 대동강그물공장을 찾았다.

산뜻한 건물들이 조화를 이룬 공장의 모습은 첫눈에 마음이 들었다.

우리를 안내하던 공장일군인 리련일은 말하였다.

《최근 공장에서는 제품의 가지수를 늘이는데 힘을 넣은 결과 성과를 거두고있습니다.

조업당시까지만 해도 공장은 과수그물을 전문으로 생산하였습니다. 그러나 강성국가건설이 힘있게 추진되고 인민들의 생활상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공장에서는 과수그물뿐아니라 여러가지 용도의 제품들을 생산하는것을 기업전략으로 내세우고 그 종수를 늘이는것과 함께 질도 부단히 높여나가고있습니다.》

공장에서는 품종을 늘이기 위한 고리를 생산자들의 기술실무수준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해나가고있다.

매주 한번씩 기술학습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종업원들이 제품생산의 원리를 깊이 인식하며 기대들에 더욱 정통하도록 하고있다. 그리고 신입공들과 기능공들을 적절히 배합하여 작업조직을 함으로써 생산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여나가고있다.

뿐만아니라 종업원들이 설비의 현대화에 맞게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잘 지키도록 하여 기대들의 리용률을 최대한 높이고있다.

실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과 기술자들을 내세우고 그들의 연구성과도입, 생산자들의 창의고안을 비롯한 기술혁신에 대한 평가사업 등은 공장에서 제품의 가지수를 늘이고 질을 높이게 하는 중요한 고리의 하나로 되고있다.

여러가지 그물천들을 생산하고있다.

생산공정의 종합조종

대형실토리감기공정

여러가지 규격의 그물실 생산

결과 생산원가를 절약하면서도 새 제품을 개발할수 있는 좋은 기술혁신안들이 나오고있다.

압출공정의 생산자들은 기술혁신으로 최소한 0. 2㎜밖에 뽑지 못하던 노즐을 개조하여 그물실을 0. 18㎜까지 뽑아 원료를 절약하면서 생산원가도 낮추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런가 하면 그물짜기 및 련결공정의 생산자들은 과수그물밖에 짜지 못하던 직기의 잉아를 자체의 실정에 맞게 개조하여 과수그물뿐아니라 수입에 의존하던 곤충막이그물과 건설장들에 쓰이는 안전용그물, 수산부문에 필요한 각종 규격의 물고기잡이그물 등을 생산하고있다.

공장에서 새로 개발한 다양한 색갈과 여러 형태의 그물제품들은 사회주의건설장들과 인민들속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있다.

공장에서는 앞으로 그물의 가지수와 수명을 늘이면서도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해주는 원칙에서 새 제품을 개발할 목표를 내세우고 이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생산된 제품의 일부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건설장들에 보내줄 기포부재생산을 다그치고있다.

일군들이 현장에 내려가…

기술혁신운동을 대중적으로 벌려

중요건설장들에 마감건재를 생산하여 보내주는 평양기포부재공장에서 생산적앙양이 일어나고있다.

지금까지 공장에서는 건설에서 새로운 번영기를 열어놓을데 대한 올해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공장에서 생산된 기포부재를 비롯한 여러가지 건재들은 지난 기간 통일거리, 만수대거리, 창전거리건설 등 여러 대상건설에 요긴하게 쓰이였다.

공장의 로동계급은 건설에서 3대요소의 하나인 건재를 생산한다는 긍지를 안고 건설장들에 질좋은 기포부재를 더 많이 보내주기 위해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공장의 일군들은 대담한 생산목표를 세우고 그 수행을 위한 생산조직과 지휘를 치밀하게 짜고들고있다.

이와 함께 오늘의 진군에서 과학기술을 앞세울 때 비약의 불바람이 일어난다며 비상한 창조정신으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에 기술자, 로동자들이 적극 떨쳐나서도록 떠밀어주고있다.

그 과정에 4. 15기술혁신돌격대와의 협력밑에 실현한 상사식계량기와 혼합공정의 콤퓨터화는 생산에서 커다란 은을 내고있다. 그리하여 그전에는 많은 로력과 품을 들이면서도 정확성을 보장하기 힘들던 계량과 혼합공정을 정보화하여 생산시간을 단축하고 많은 로력을 절약하였으며 제품의 질도 한층 높이였다.

벽돌직장에서는 기술자, 로동자들과의 협동밑에 진동압축에 의한 벽돌성형기를 제작하여 벽돌생산의 질을 높이였을뿐아니라 하루 생산량을 이전보다 훨씬 높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외장재작업반에서는 방수를 비롯한 다기능작용을 하는 여러가지 색갈의 외장재를 개발하여 사람들속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대중적인 기술혁신운동으로 공장에서는 지난 기간보다 더 높이 세워진 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함으로써 건설장들에 필요한 건재를 제때에 원만히 보장해주고있다.

공장기술과장 김철수는 말하였다.

《건설의 새로운 번영기를 열어놓는데서 건재공업부문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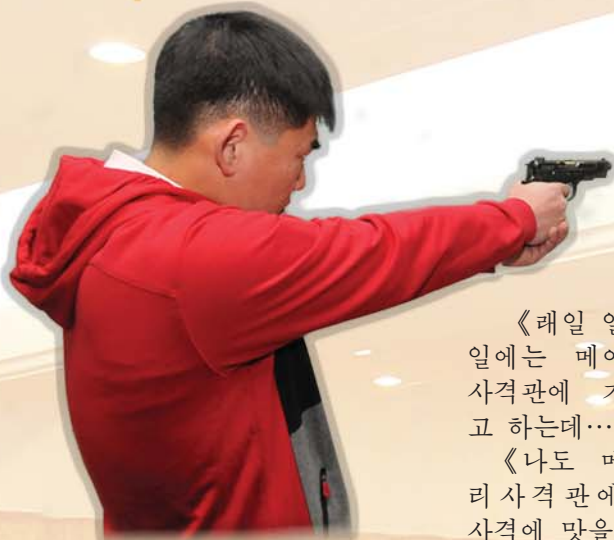
우리는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려는 당의 의도를 더 높은 생산성과로 받들어나가겠다.》

올해의 진군을 로력적위훈으로 빛내일 일념을 안고 과감한 공격전을 벌리고있는 공장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의 앙양된 열의로 하여 생산에서는 날마다 새로운 혁신이 이룩되고있다.

글 본사기자 윤영일
사진 본사기자 최원철

교착제 계량작업

생산된 기포부재들을 건설장들에 보내주고있다.

사격애호가들을 부르는 곳에서

전자권총사격장에서

《래일 일요일에는 메아리사격관에 가려고 하는데… 》

《나도 메아리사격관에서 사격에 맛을 들인 다음부터는 자주 그곳으로 가고싶어.》

…

요즈음 사람들속에서 오가는 이야기를 들을때면 우리의 마음마저도 흥그러워지군 한다.

얼마전 메아리사격관에 대한 취재길에 오른 우리는 청춘거리의 소나무숲속에 들어앉은 봉사건물앞에 섰다.

우리가 부관장 김영호의 안내를 받으며 본관홀에 들어서니 사격관의 특성이 살아나게 원형사격과녁을 형상한 천정과 바닥장식이 제일 먼저 눈에 뜨이였다.

그는 우리가 지금 서있는 2층짜리 건물은 본관인데 여기에는 실내사격장들과 상점, 전자오락실, 사격교육실 등으로 꾸려져있으며 본관뒤에는 야외사격장과 야외식당, 체육장이 있다고 말하였다.

김영호의 안내를 받으며 1층에 있는 사격장구역에 들어선 우리는 먼저 광선총사격장에 들리였다.

그곳에서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광선(레이자빛)을 내는 보총으로 대형투영판에 현시된 숲속에서 뛰노는 토끼, 사슴, 곰, 호랑이, 꿩과 강물우를 나는 물오리와 같은 목표물들을 쏘아맞히고있었다.

야외사격장에서

최근 한 경기에서 5만점이상 기록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있다고 하는 봉사원 박향미의 말을 들으며 우리는 50m보총사격장으로 걸음을 옮기였다. 그곳은 사람들로 꽉 들어차있었다.

8개의 사격좌지를 차지한 사수들은 사격에 열중하고있었고 관람석에 앉은 사람들은 사수들의 사격성적을 보며 탄성을 올리고있었다.

우리곁에 있던 한 청년은 관람석에 앉아 차례를 기다리면서 사수들의 사격결과를 한눈에 바라보는 재미도 별다르다고 말해주었다.

2층에 있는 25m권총사격장도 이곳과 같이 꾸려졌다고 하는 김영호와 함께 우리는 계단을 따라 웃층으로 올라갔다.

홀에 꾸려진 사격교육실에서 사격의 원리에 대한 교육을 받고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였다.

실내사격장

이어 우리는 30m실내활쏘기장으로 들어섰다.

활쏘기장은 벽체와 바닥을 자연미가 나게 통나무와 잔디를 형상하여 마치도 숲속에서 활을 쏘는듯 한감을 주었다. 안내원들은 손님들에게 활을 잡는 방법과 조성을 보는 방법, 활줄에 화살을 걸고 발을 놓는 자세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친절하게 알려주고있었다.

우리와 만난 남포시 와우도구역 룡수동에서 살고있는 로영철의 안해 륙화숙은 《활쏘기가 쉬운줄 알았는데 화살 몇대를 날리고나니 온몸에서 땀이 쭉 납니다.》라고 말하였다.

복도를 따라 전개된 전자권총사격장을 지나며 우리는 권총을 잡은 어린 자식을 품에 안고 함께 목표물을 맞히는 아버지와 곁에서 응원하는 어머니뿐아니라 제법 익숙된 솜씨로 사격점수를 올리는 10살미만의 학생소년들도 볼수 있었다.

부관장은 《솔직히 말하여 사격의 진맛은 야외사격장에 가야 맛볼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야외사격장으로 우리를 이끌었다.

우리는 문앞에서 꿩 한마리를 가지고 나오는 봉사원처녀와 마주치게 되였다. 어떤 손님이 방금 쏘아잡은 꿩을 식당으로 가져가는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손님들의 사격솜씨를 어서빨리 보고싶은 마음이 앞섰다.

야외사격장에는 25m권총사격과 50m보총사

실내활쏘기장에서

격, 동물사격좌지가 12개나 있었다.

사격좌지들에서는 귀마개를 한 사수들이 풍선이나 병을 비롯한 목표물을 연방 명중하고있었는데 그들속에는 중국대련경우국제무역유한공사 총경리 동지강도 있었다.

퍼그나 시간이 흘러 한발, 두발 명중탄을 날리게 되자 그는 함께 동행한 사람들에게 《나에게 박수를 쳐주십시오.》라고 우스개소리까지 하면서 얼굴에 만족한 웃음을 지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격장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여운을 안겨주었다.

인민의 문화정서생활에 희열과 활력을 안겨주며 더 많은 사격애호가들을 부르고있는 메아리사격관의 총소리.

우리는 인민의 기쁨과 행복이 메아리되여 높이 울리는 총소리를 뒤에 남기며 사격관을 나섰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리명국

수 기

우리 녀성들의 삶을 두고

한그루의 거목에도 줄기와 잎새를 살지우는 뿌리가 있다.

사람들이 일흔살을 훨씬 넘긴 나를 영웅지배인이라고 부르며 존경해줄 때마다 나는 우리 녀성들의 삶을 시대의 상상봉에 내세워준 고마운 품에 대해 생각하군 한다. 그리고 언제인가 책에서 읽었던 하나의 이야기를 돌이켜보군 한다.

나라가 해방된후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황해제철련합기업소(오늘의 명칭) 용광로복구현장을 찾으시여 한 녀성로동자의 손을 잡아주시다가 갑자기 안색을 흐리시였다.

그 녀성은 해방전부터 어린 자식들을 먹여살리기 위해 힘든 일터에서 무거운 쇠메를 가지고 일하느라 손에 옹이같은 못이 촘촘히 박혀있었다. 그는 고된 로동을 치르고도 녀자라는 리유로 품삯을 절반밖에 받지 못하였다.

수령님께서는 녀성들의 참혹한 과거사를 읽으신듯 썩살이 배긴 그의 손을 어루쓸어보시였다.

돌이켜보면 천대와 멸시의 대상으로 인찍혀져 사회에 당당히 나설수 없었던것이 해방전 우리 녀성들의 처지였다.

그후 주체35(1946)년 7월 30일 수령님께서 녀성들이 남자들과 꼭같은 권리를 가지고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생활에 참가할수 있게 하는 력사적인 남녀평등권법령을 발포하시였다.

력사의 갈피를 더듬어보면 수령님께서는 나라를 찾기 위한 간고한 싸움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녀성문제를 사회혁명에서 나서는 근본문제의 하나로 제기하시였다. 그리고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작성하시고 거기에 남녀의 차별없는 인륜적평등의 보장과 녀자의 인격존중 등을 새겨넣으시였다.

참으로 우리 녀성들이 자기 삶의 진정한 발전의 길에 들어서게 된것은 녀성들에 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더불어 마련된 남녀평등권법령이 발포된 때부터였다.

바로 그때로부터 녀성들은 사회에 광범히 진출하게 되였고 오늘날에는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으로, 당과 국가기관, 사회단체의 일군으로, 교수, 박사, 인민체육인, 인민배우로 자라나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슬기와 존엄을 떨치게 되였다.

나라없던 그 세월 어린 나이에 남의 집 아이보개로 살면서 봉건적구속에서 벗어나보지 못하였던 나도 사회의 들끓는 현실속에 몸을 잠그고 마음껏 배우며 일을 하게 되였다. 오늘에는 한개 군의 식료공장 지배인으로 사업하고있다.

나는 날이 갈수록 커만 가는 조국의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힘껏 노력하였다. 비록 녀성들이 많은 공장이지만 자체의 힘으로 원료기지도 확보하고 생산건물과 설비들도 현대화하였으며 질좋은 술과 사탕, 과자 등을 많이 생산하여 군안의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였다. 그밖에도 인민군대원호와 나라의 중요대상건설을 적극 지원하였다.

지금까지 내가 일을 해올수 있은것은 녀성들의 권리를 찾아주고 빛내여준 조국의 사랑이 떠밀어주었기때문이다. 그러나 나라에서는 내가 사업에서 성과를 거둘 때마다 국가적

인 대회의 주석단에도 불러주고 표창도 해주었으며 군의 정사를 론하는 대의원으로, 로력영웅으로 빛나는 삶의 언덕에 내세워주었다.

내가 일흔번째 생일을 맞을 때에는 큰 생일상을 마련해주며 건강한 몸으로 일을 더 잘해나가도록 앞날을 축복해주었다.

정녕 뿌리없는 줄기가 있을수 없듯이 고마운 그 품을 떠나 우리 녀성들의 오늘의 삶을 생각할수 없다.

나는 앞으로도 조국을 위해 있는 힘을 다 바쳐나가겠다.

평안남도 회창식료공장
지배인 로력영웅 장옥선

우리의 장단, 우리의 멋을 살려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민족가극 《춘향전》을 잊지 않고있을것이다.

지금으로부터 수십여년전 세상에 나온 이 가극은 우리 인민이 예로부터 사랑해오던 고전소설《춘향전》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사상미학적으로 다듬어 가극으로 옮겨놓은것이다.

내외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킨 이 가극을 창조한 단위가 바로 국립민족예술단이다.

국립민족예술단은 이름그대로 우리 민족이 력사적으로 창조하여온 우수한 음악무용유산들을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 조국의 이름있는 예술단체이다.

창립된후 60여년간 예술단은 자기의 첫 작품인 가극 《견우직녀》를 창작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사상예술성이 높고 민족성이 뚜렷한 훌륭한 작품들을 수많이 창작하였다.

대표적으로 가극 《금강산의 노래》, 민속무용조곡 《평양성사람들》, 가무 《우리의 인민군대 노래부르자》, 《아름다운 고향》 등이다.

예술단은 지난 기간 평양과 지방의 여러곳에서 공연을 활발히 진행하여 인민들의 사랑을 받았으며 해마다 예술소편대를 뭇고 각지 공장, 기업소와 농촌, 탄광 등을 찾아가 근로자들을 더 높은 로력적위훈에로 불러일으켰다. 올해 봄철에만도 재령군과 배천군, 연안군 등 황해남도와 황해북도의 10여개 군에서 예술소품공연활동을 벌려 농업근로자들의 생산의욕을 추동하였다.

자기의 력사적로정을 걸어오는 기간 예술단은 중국, 로씨야, 도이췰란드, 오스트랄리아 등에서 공연을 진행하여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우리 조국에 대해 알게 하고 해외동포들에게는 애국적이며 민족적인 감정을 안겨주었다. 뿐만아니라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하기 위해 조국에 온 해외동포예술인들의 예술적기량을 높여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바치였다.

이곳 일군인 송은철은 말하였다.

《우리 예술단이 거둔 성과는 절세위인들의 령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대원수님들께서는 우리 예술단의 발전을 위해 때로는 작품창작에서 들고나가야 할 선도 명확히 그어주시고 때로는 공연도 보아주시며 창작가, 예술인들의 기량을 높여나가도록 하시였다. 그 과정에는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혁명가극 〈밀림아 이야기하라〉를 완성시켜주시기 위해 몸소 창조집단의 한 성원이 되시여 무려 10여차례나 지도해주신 나날도 있다.

우리는 한평생 민족성을 귀중히 여기시며 민족예술발전에 그토록 많은 심혈을 기울여오신 대원수님들의 뜻을 받들어 오늘도 창작열의로 들끓고있다.》

지금 예술단에서는 자기의 얼굴을 살려 민요, 음악, 무용 등 각 방면에서 민족의 고유한 특성을 보존하면서도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리듬, 선률, 률동을 창조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이를 위해 우리 음악의 민족적특성을 나타내는 장단에 대한 연구를 깊이 하고 가야금과 장고를 비롯한 민족악기들을 리용한 가무창작에 힘을 넣고있다. 한편 배우들의 정상적인 예술기량발표회를 통하여 실력경쟁을 벌리고 있다. 하여 올해에 들어와 혼성군무 《풍년벌의 농악소리》를 비롯한 훌륭한 작품들을 짧은 기간에 만들었다.

우리의 장단, 우리의 멋을 살려나가는 국립민족예술단,

머지 않아 예술단은 새로운 작품들을 련이어 내놓아 조국인민들과 해외동포들에게 또다시 기쁨을 안겨주게 될것이다.

새로운 민속무용을 창작하기 위한 의상과 소도구 문제를 토의하고있는 창작가, 예술인들

민족의 장단을 살려간다.

가무와 합창 《조국찬가》중에서

무용 《소고춤》의 한 장면

건설장들에서 음악소품공연 진행

글 본사기자 홍정혁
사진 본사기자 최원철

은반우에 피여나는 꽃망울들

빙상관에 가면 한뽐이나 될가 한 조그마한 빙상휘거스케트를 신고 은반우에 나선 어린이들과 청소년학생들의 모습을 볼수 있다. 기초기술동작들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그들은 누구나 앞날의 빙상휘거선수로 자라날 꿈을 가슴에 안고있다.

은반과 친숙해진 학생들은 그들뿐이 아니다. 빙상호케이와 짧은주로속도빙상종목을 선택한 학생들도 있다. 그들은 모두 빙상관청소년체육학교의 학생들이다.

빙상관청소년체육학교 부교장 전승철(43살)을 비롯한 지도교원들은 아름답게 피여나게 될 꽃망울들을 활짝 피워가는 원예사와도 같다.

아무리 좋은 꽃씨앗도 정성을 기울여주는 원예사의 손길이 있어야 아름답게 피여날수 있기에 체육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나라의 훌륭한 체육선수들로 키워나가는데 모든것을 지향시켜나가고있다.

체육학교학생들은 종목별 기초기술훈련은 물론 학과학습에서도 남다른 열의를 보이고있다.

그들의 하루일과는 이렇게 시작된다.

매일아침 그들은 자기의 책가방에 교과서와 학습장 등 학용품들을 갖추어넣고 학교길에 오른다. 각이한 나이인 그들은 빙상관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소학교와 초급, 고급중학교에 조직된 체육학급들에서 수업을 받고있다.

아는것이 힘이며 육체기술적으로뿐아니라 높은 지식을 소유한 체육선수만이 국제무대에서 우승할수 있다는것을 잘 알고있는 그들이다.

그들은 누구나 수업에 적극 참가하여 선생님의 설명을 귀담아듣고 또 많은것을 물어보고있다. 그들이 표현한대로 45분수업시간은 지식의 샘을 마시는 시간이여서 체육학교학생들은 매달마다 치르는 학년적인 시험에서 언제나 우수한 성적을 받군 한다.

빙상휘거를 처음 배우는 어린이들

빙상관청소년체육학교에서는 매주 수요일을 모체학교운영의 날로 정하고 학교들과의 긴밀한 련계를 가지고있다. 종목별 지도교원들은 학생들의 학과실력과 도덕품성 등에 대해 정상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료해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즉시에 풀어나가고있다.

오후시간은 학생들 누구나가 즐겨 기다리는 종목별 훈련시간이다.

지도교원들은 그들의 나이와 심리적특성에 맞게 세운 교수요강에 따라 하루 훈련계획을 무조건 집행한다. 훈련에서 땀을 많이 흘려야 체육경기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 그들의 높은 요구성은 학생들에게 육체훈련, 기초기술훈련, 무용훈련 등 자기앞에 나서는 훈련계획들을 어김없이 수행해나가게 하고있다.

기초기술동작들을 완성하기 위해

학교에서는 종목별 훈련과 여러차례의 검열경기를 통하여 특기있는 학생들을 선정하고 그들에 대한 교수요강을 따로 세워 우수한 후비선수들을 키우기 위한 사업을 전망성있게 내밀고있다.

이곳 청소년체육학교과정을 마친 학생들은 대성산체육단을 비롯한 여러 체육단과 대학체육단에서 선수생활을 하게 된다.

해마다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진행되는 백두산상국제휘거축전무대에 이채롭게 펼쳐지는 체육학교학생들의 출연은 은반우에 피여나는 꽃망울들이 얼마나 밝고 생신하며 아름답게 가꿔지고있는가를 남김없이 보여주고있다.

높은 속도와 인내력, 무비의 용감성과 능란한 날쓰기기술로 은반우를 종횡무진하는 빙상호케이종목 남녀학생들의 모습 또한 볼수록 미더웁다.

뿐만아니라 학교에는 지난해 4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제빙상련맹 2013년 세계발전컵짧은주로속도빙상경기대회 소년C급 녀자 500m와 1 000m경기에 출전하여 두개의 금메달을 쟁취한 김금향학생도 있다.

빙상관청소년체육학교의 모든 지도교원들과 학생들의 높은 지향과 피타는 노력에 의해 앞날의 은반우에는 더욱 아름다운 꽃송이들이 만발하게 될것이다.

글 본사기자 리 해
사진 본사기자 림정국

오전에는 공부를 한다.

김일성화, 김정일화축전과 화초전시회가 자주 진행된다.

꽃과 생활

어디 가나 푸른 빛이 완연하고 꽃향기 그윽한 여름계절이다.

가로수 우거지고 잔디들이 푸른 주단을 펼쳐놓은 수도 평양의 거리마다에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피여나 오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있다.

얼마전 우리는 갖가지 꽃들로 단장된 거리의 운치를 부감하며 대성산기슭에 자리잡은 평양화초연구소를 찾았다.

우리의 걸음은 먼저 화초재배온실로 향하였다.

온실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의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야— 》 하는 감탄이 절로 나왔다.

모든것이 자동화된 온실, 그안에서 저마다 아름다움을 뽐내며 꽃바다를 펼친 여러가지 꽃들과 온실안을 가득채운 그윽한 향기…

씨네라리아, 제라니움, 삼색제비, 씨클라멘, 금전화, 효성화, 은잎국 등 하나하나의 꽃들을 보며 황홀경에 잠겨있는 우리에게 부원 리금란은 말하였다.

《오늘 꽃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는 날이 감에 따라 높아지고있습니다.

해마다 우리 나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속에 **김일성**화, **김정일**화축전을 비롯하여 전국적인 화초전시회가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축전과 전시회를 통하여 사람들은 관상적가치가 크고 특이한 화초, 꽃관목품종들과 여러가지 화초재배기술에 대한 경험을 나누기도 하고 새 품종의 꽃들을 구하기도 합니다.

우리 연구소만 놓고보아도 평양시의 구역화초사업소들과 전국각지의 기관, 기업소들은 물론 원예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이 하루에도 수많이 찾아오고있습니다.

정말이지 손이 딸릴 정도입니다.》

그의 말을 증명하기라도 하듯 연구소로는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다.

꽃재배기술을 한자한자 적어가는 사람들, 새 품종의 꽃모를 구하러 멀리 지방에서 온 사람들, 활짝 핀 꽃들이 상할세라 정성을 다해 자동차들에 싣는 화초사업소의 종업원들…

지난 기간 연구소에서는 날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꽃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조직배양에 의한 화초번식방법을 확립한데 기초하여 우리 나라의 기후풍토에 맞는 수많은 꽃들을 재배육종하였다.

최근년간에만도 그들은 화단과 꺾은꽃, 화분용으로 쓰이는 수십종에, 몇백만포기에 해당하는 화초들을 재배하고 종자들을 마련하여 평양시의 구역화초사업소들과 기관, 기업소들에 정상적으로 보내주고있다.

화초의 특성과 재배에서 나서는 기술도 성의껏 배워주고있다.

평양화초연구소만이 아니다.

시내의 곳곳에 꾸려진 꽃상점들에서도 아름다운 꽃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있다.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들이 많아 사람들의 호평을 받고있는 황금벌꽃상점도 그중의 하나이다.

평양화초연구소에서 새 품종의 화초를 육종하기 위한 연구와 재배를 진행한다.

가정과 거리에서

꽃상점에서

《거리와 마을, 집집마다에서 꽃가꾸기가 활발해지고 또 사람들의 생활에서 꽃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니 꽃수요는 나날이 늘어나고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황금벌꽃상점 책임자 장현옥을 따라 우리는 꽃전시장을 방불케 하는 꽃상점안을 돌아보았다. 그의 말대로 상점안에는 파연없는 꽃들이 없을상싶었다.

씨네라리아, 부상화, 철쭉, 일일초 등 향기그윽한 꽃들과 실내장식용천꽃, 종이꽃들로 상점안은 온통 울긋불긋하였다.

《부모와 안해, 스승과 친구의 생일을 맞으며 꽃을 사가는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싱싱한 생화를 골라 송이나 다발을 엮어주기도 하고 손님들의 기호에 맞게 주문봉사도 해주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최성희판매원이 하는 말이였다.

그의 말에 의하면 생일축하나 결혼식축하인사를 하러 갈 때 그리고 3. 8국제부녀절과 어머니날 등 여러 뜻깊은 계기에 꽃을 사러오는 손님들로 상점은 늘 흥성인다는것이였다.

우리는 이곳에서 보통강구역 서장동 34인민반에서 살고있는 리병주할머니를 만났다.

《상점에 좋은 꽃들이 들어왔다고 해서 왔다오.

내 나이 이젠 여든을 가까이 하지만 집에서 꽃을 가꾸고있소.

정말이지 꽃은 생활의 향기이고 정서라오.》

그러면서 할머니는 집주변에 꽃상점들이 있고 구역화초사업소들에서 정성껏 키운 꽃들을 항시적으로 상점들에 보장해주는 정연한 체계가 세워져있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말하는것이였다.

우리는 아름다운 정서를 더해주는 꽃가꾸기와 더불어 거리와 마을, 일터와 가정들에 행복의 향기, 애국의 향기가 차넘치는 우리 생활이 얼마나 좋은가를 느끼며 상점을 나섰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조선속담 (거짓)

—감장강아지로 돼지만든다

비슷한것을 가지고 진짜처럼 꾸미여 남을 속이려고 하는것을 이르는 말.

—점잖은 개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오줌싼다)

점잖을 빼던자가 못된짓을 먼저 하는 경우에 비겨이르는 말.

—까마귀가 메밀을 마다한다

그것을 꼭 좋아할 사람이 겉으로는 싫다고 할 때 비겨이르는 말.

참고: ① 까마귀가 보리를 마다한다

② 까마귀가 오디를 마다한다

—뜨물먹고 주정한다

① 취한척 하고 하는 주정을 이르는 말.

② 뻔히 알면서도 당치 않게 부리는 생억지를 이르는 말.

—속검은 사람일수록 비단두루마기를 입는다

잘못이나 죄를 저질러 뒤가 켕기는 사람일수록 검은 속을 감추기 위하여 갖은 술책을 다 꾸민다는것을 형상적으로 이르는 말.

협의회 진행

녀성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여러가지 검사를 진행한다.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를 돌아본 해외동포들은 누구나 한결같이 말하고있다.

《조국의 녀성들이 정말 부럽다. 평범한 녀성들이 이렇게 훌륭한 의료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마음껏 치료를 받고있는것을 보니 같은 녀성으로서 부러움을 금할수 없다.》

하나의 물방울에 온 우주가 비낀다고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를 찾은 해외동포들뿐아니라 수많은 외국인들이 돈 한푼 내지 않고 마음껏 병치료를 받고있는 녀성들의 행복한 모습에서 조선의 우월한 사회주의보건제도에 대한 리해를 가지고있다.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가 개원된 때로부터 1년반 남짓한 시일이 흘렀다. 연구소의 력사는 길지 않지만 연구소의 의료일군들이 녀성들에게 바치는 헌신의 낮과 밤은 헤아릴수 없다.

의료일군들은 나라에서 우리 녀성들을 위해 세운 현대적인 병원에서 그들이 실지 덕을 볼수 있게 환자치료와 연구사업을 진행해나가고 있다.

연구소에서는 매해 3월과 9월에 진행하는 전국의 녀성들을 위한 유선검진체계를 세우고 이 사업이 은을 내도록 하고있다.

연구소의 의료일군들은 도, 시, 군인민병원들에 내려가 강습을 조직하고 옳은 기술적지도를 줌으로써 녀성들에 대한 검진조직사업에서 빈틈이 없도록

하고있다. 그들의 성의있는 노력에 의하여 지금 조국의 도, 시, 군들에는 모든 녀성들이 유선질병을 제때에 조기진단하여 치료를 할수 있는 정연한 체계가 세워지게 되였다.

과장 김춘란을 비롯한 검진과 의사, 간호원들은 여러 단위에 직접 내려가 위생선전활동을 벌리고 이동검진 및 치료대책도 면밀히 세우고있다.

검진과뿐아니라 외래과, 화상진단과, 종양예방과의 의료일군들도 연구소에 파송된 녀성들에 대한 치료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워나가고있다.

지난 기간 유선 1, 2과와 고려치료과의 의료일군들은 수술적방법과 함께 물리, 고려, 약물치료 등을 적절히 배합하여 환자치료사업을 진행하였다.

주체101(2012)년 11월 연구소가 개원된후 많은 녀성들이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그들속에는 평양에서 멀리 떨어진 북부산간지대로부터 최전연지구에서 살고있는 녀성들도 있으며 다른 나라의 녀성들도 있다.

녀성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베풀어지는 나라의 은덕이 너무 고마와 이곳에서 치료를 받은 함흥시 흥남구역 서호1동에서 살고있는 최서향은 온 나라 녀성들의 마음을 담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감사의 편지를 올리였다.

훌륭한 연구소에서 두번다시 새 생명을 받아안게 된 감격을 담은 그의 편지를 보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친필을 보내주시였다.

《앞으로 건강관리를 잘하십시오
김 정 은
2013. 2. 13》

오늘도 연구소의 의료일군들은 자기들의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 유선질병진단과 치료수준을 새로운 높이에로 올려세우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임철명

인생의 보람

조현지(가운데)의 가정

얼마전 대안친선유리공장 부지배인 조현지의 가정에는 기쁜 소식이 날아들었다.

김책공업종합대학 졸업반학생인 맏아들은 대학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론문에 대한 저술을 끝내였고 둘째아들은 평양기계대학에 입학하여 대학적인 첫 실력판정시험에서 순위권에 들었다는것이다. 그리고 조선인민군 군관으로 복무하다가 제대되여 군관의 안해가 된 맏딸 금옥이한테서는 자기 아들의 돌잔치에 꼭 와달라는 련락이 왔다.

높은 성적으로 중학교를 졸업한 그의 아들딸 세 자식이 조국보위초소에서 영예로운 군사복무를 마친후 희망대로 대학공부도 하고 깨가 쏟아지는 행복도 맛보고있으니 그들의 아버지인 조현지로서는 가슴흐뭇할 일이 아닐수 없었다.

(아마 내가 아직도 일본에 살고있다면 이런 기쁨을 맛볼수 있을가.)

일본에서 태여난 그는 주체49(1960)년 10월 조국의 품에 안기였다.

이국땅에서 민족적수모를 받으며 어린 가슴에 멍이 들었던 그를 조국은 언제나 행복과 영광의 절정에 세워주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어렵고 힘든 일에 부닥치거나 피로움에 모대길 때에도 그는 사랑에 젖은 어머니의 목소리로 자기를 부르는 조국의 부름을 들었다.

중학교를 졸업한 그에게는 희망이 많았다.

기계공학을 전공할가, 아니면 어학자, 의사가 될가. 배움에 대한 욕망은 그를 대학에 갈 꿈을 가지게 하였다.

그러나 그의 가슴속에 굳게 자리잡은것은 조국보위초소에서 나라를 지킬 결심이였다.

고사포병이 되여 조국의 하늘을 지키며 청춘시절을 빛내인 조현지는 함흥화학공업대학을 졸업한후 남포유리련합회사(당시) 기술과 부원으로 일하게 되였다.

그의 가슴속에는 자긍심이 더욱 커졌다. 조국의 사랑과 믿음에 보답할 일념으로 낮과 밤을 모르고 일하였다.

그는 우리 나라에는 유리를 만드는데 쓰는 모래가 많기때문에 그 어느 나라보다도 유리공업을 발전시킬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있다고 하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교시를 자자구구 학습하였다. 해방후 자립적인 발전의 길에 들어선 나라의 유리공업을 선진기술에 토대한 현대적인 공업으로 발전시키도록 하는데 자기의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나날 공업시험소 소장을 거쳐 부기사장으로 사업하던 조현지는 대안땅에 일떠선 현대적인 생산공정을 갖춘 새 유리공장의 부기사장으로 임명되였다.

(나를 손잡아 이끌며 키워주고 내세워주는 조국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에 높은 실력으로 보답해가리라.)

결심은 컸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공장에는 기능공들이 부족하였다. 이 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매 공정별 운영방법에 대한 기술학습을 매일과 같이 짜고들어 로동자들의 실력을 높이였다. 그리고 기능공학교를 내왔으며 직접 교수요강과 강의안을 세우고 강의에 출연하기도 하였다.

조현지는 자주 로동자들에게 지난 시기 유리를 생산할 때 공장자체의 힘으로 기술혁신운동을 벌리던 이야기를 해주군 하였다. 그리고 로동자, 기술자들의 지혜와 힘을 합쳐 온도조절체계며 무동력용해로, 절단피대, 유리섬유를 자체로 만들어 판유리생산을 다그치던 전세대들처럼 살며 일하자고 호소하며 그들을 생산적앙양에로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조국에서는 그를 국가적인 큰 대회에 대표로 불러주었고 그의 앞가슴에 많은 훈장들도 빛나도록 해주었다.

조현지의 한생은 세 자식과 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안겨주고있다.

조현지가 그들에게 자주하는 말이 있다.

《조국이 나를 부르고있다.

사랑에는 보답이 따르고 믿음에는 실천이 따라야 하는데 애국의 뜨거운 마음이 잠시라도 식는다면 조국이 나를 부르는 그 목소리를 들을수 없다.》

생산현장에서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태천군의 자랑

얼마전 우리가 뻐스를 타고 평양—신의주사이도로를 따라 취재길을 이어갈 때였다.

평원으로부터 시작하여 숙천, 문덕, 안주지역의 넓은 열두삼천리벌을 지나온 사람들속에서 토지정리로 변모된 자기 고장의 자랑이 시작되였다.

그중에서도 한 녀인의 이야기가 우리의 호기심을 끌었다.

《뭐니뭐니 해도 우리 고장의 한드레벌이상 없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한드레벌이란 이름은 지난날 우리 고장농민들이 손바닥만 한 뙈기논들에 물을 한드레씩 퍼서 농사를 지었다는데서부터 유래되였습니다.

그 뙈기논들이 규격포전으로 정리되고 논두렁의 길이도 3천 600여리였던것이 절반이상으로 줄어들었으니 이런 자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수자까지 들어가며 자기 사는 고장에 대해 자랑을 하는 녀인과 통성을 하고보니 중국 흑룡강성 녕안시에서 살고있는 리보배동포의 조카 리영주였다.

자기네가 살고있는 태천군이야말로 자랑많은 고장이라는 그의 이야기에 우리는 그곳을 찾았다.

박천, 운전을 지나 태천군 은흥리에 들어서니 아득히 펼쳐진 한드레벌의 지평선이 안겨왔다.

바둑판처럼 일매지게 규격화된 포전들에서 기계화의 동음이 높이 울리고 영농작업으로 들끓는 모습을 보느라니 문득 한드레벌을 노래한 시구절이 떠올랐다.

…
하나의 작은 드레박
물이 한드레면
눈물이 한드레
물이 한드레면
피땀이 한드레
그 고삭은 드레줄이
세월을 잇고 대를 넘던
이 땅에서
봉건사회의 유물
그 드레줄을 영영 들어낸
기계화의 대지
사회주의대지의
위대한 탄생이여
…

천지개벽된 한드레벌에 지난날에는 볼수 없었던 학들까지 자주 내려앉군 한다는 이야기며 대령강의 지류인 천방강에 언제를 쌓아 전기를 생산하고 거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은흥, 덕흥, 신봉지구에 펼쳐진 벌들에 자연흐름식물길을 따라 생명수로 흘러드는 모습등 한드레벌 그 어디에서나 듣고 보는 모든것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었다.

가없이 펼쳐진 한드레벌과 행복과 희열에 넘친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태천군의 또 하나의 자랑은 전기부자군이라는 리영주의 말을 되새겨주었다.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새기며 마평지구에 자리잡고있는 태천2호발전소를 찾았다.

푸른 잎 설레이는 잣나무숲이며 산중의 넓은 호수는 발전소언제의 주변전경을 더욱 이채롭게 해주었다.

폭포인양 언제밑으로 소리치며 떨어지는 대령강의 맑은 물을 부감하는 우리에게 발전소의 한 일군이 말하였다.

《이 대령강은 어제도 흐르고 오늘도 흐르고있습니다. 수수천년 제멋대로 흘러내리던 대령강이 오늘날에 와서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크게 이바지하는 전기강, 행복의 강으로 전변되였습니다.

여기 태천발전소만 보더라도 우리 식의 새로운 수력자원개발방식으로 건설된 선군시대의 자랑찬 창조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령강의 흐름을 따라 계단식으로 건설된 태천1호로부터 5호까지의 발전소들은 태천지구는 말할것도 없고 나라의 곳곳에 전력공급을 하고있다.

전기공급만이 아니다. 계단식으로 건설된 발전소언제들로 형성된 대인공호수들의 물은 한드레벌을 비롯한 서해안지대의 많은 면적의 논밭들에 생명수를 보장하고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도 보다 윤택하게 하여주고있다.

그의 말을 들으며 발전소들을 돌아본 우리는 군의 여러곳에도 들려보았다.

넓고 시원하게 뻗은 도로를 따라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게 세워져있는 여러가지 형식의 다층살림집과 아담한 문화주택들, 공공건물들과 급양 및 상업봉사망들이 규모있게 들어앉은 읍지구며 태천지방의 명산물인 옻진과 옻제품, 초물제품들과 철제, 화학, 목재, 도자기, 식료 등 여러가지 제품들을 생산하는 지방공업공장들과 평북돼지공장과 같은 축산기지를 비롯한 그 어디에 가보아도 누구나 자기 사는 고장과 일터에 대한 자랑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결코 자랑만이 아니였다.

리영주를 비롯하여 우리를 만나본 사람들은 말하였다.

자랑많은 이 땅에서 우리의 손으로 더 많이 창조하고 가꾸어 우리가 사는 고장을 더욱 더 살기 좋은 고장으로 변모시키겠다고.

더욱 변모될 래일의 모습을 안고 변함없이 흐르는 대령강의 모습을 뒤에 남기며 우리는 다른 고장에로의 취재길을 이어갔다.

글 본사기자 강 국
사진 본사기자 김강무

리보배동포의 조카 리영주의 가정에서

태천의 전력생산자들

옻칠공예는 태천군의 특산이다.

중국 료녕성 심양시 조선족제2중학교 장세창 방 편금옥조카 앞

조카를 기다린다

금옥아, 그동안 잘 있었느냐.

난 평양에 살고있는 재순이의 어머니이다.

올해 내 나이 90이지만 사진에서 보다십이 이렇게 정정하다.

조카가 평양에 한번 꼭 오겠다기에 이제나저제나 기다리고있다.

우리 딸 재순이에게서 조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몇해전 재순이가 중국에 갔을 때 사촌자매간에 처음 만났지만 마치도 친언니처럼 각별하게 대해주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

우리 재순인 형제도 없는데다가 아버지의 사랑도 많이 받아보지 못해 정을 몹시 그리워한다.

조카의 가족은 다 건강하여 자기말은 일을 잘 하고있으리라 믿는다.

조카사위는 조선족학교에서 조선말을 배워주고있다지? 자식들도 조선어교육자로 일하고있다는데 직업이 정말 좋구나.

금옥아, 헌데 너의 건강은 어떤지. 재순인 네가 이역땅에서 남편과 자식들의 뒤바라지를 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여 오래동안 류마치스관절염을 앓고있다고 하더라. 재순이가 얼마나 너를 걱정하는지 모른다. 중국에서 너와 헤여질 때 다리가 아파 잘 걷지 못하면서도 국경까지 따라나섰다는 말을 들었다.

재순이가 중국에 가 조카를 만나고 온지도 벌써 여러해라는 시간이 흘렀구나.

일전에 조카의 편지를 받고서도 재순인 창작사업이 너무 바빠 좀처럼 회답을 못했다. 한데 이렇게 《금수강산》잡지 기자들을 만나는 기회가 생겨 내가 편지를 쓴다.

마침 방금전까지 난 조카에게 주려고 오래동안 품을 들여온 조선치마저고리를 완성했다.

재순이의 말이 금옥인 비취색을 좋아한다던데… 네가 중국에서 재순이와 헤여질 때 자기의 비취색세타를 입혀주며 《나의 체취를 안고가거라.》라고 하였다더구만.

그래서 재순이는 비취색옷감을 마련하고 나는 옷을 지었다. 조카마음에 들겠는지 모르겠다. 난 재순이에게 금옥이의 키는 얼마이고 체격은 어떤한가를 깐깐하게 물어보며 짐작으로 옷을 지었는데 꼭 맞으면 얼마나 좋겠나.

조카나이가 70이 다되였어도 이 조선치마저고리를 입으면 아마 10년은 더 젊어보일거다.

이제 평양에 오면 이 옷을 입고 나와 함께 금수산태양궁전과 미림승마구락부, 문수물놀이장으로 발목이 시도록 다녀보자구.

우리 평양은 요즘 하루가 다르게 눈부시게 변모되여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얼마전 내가 사는 문수거리에 새로 일떠선 류경구강병원과 옥류아동병원을 찾아주시였다. 나도 류경구강병원에 가서 이발치료를 받았는데 이제 금옥이도 평양에 오면 꼭 그곳에서 이발치료를 받아보라구.

의료설비들도 세계적수준이지만 의료일군들의 정성 또한 그 어디에도 비길데가 없다.

언제 평양에 오겠는지. 떠나기 전에 먼저 소식을 알려주렴.

래일 재순이는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로 현실체험을 떠나게 되는데 준비를 하느라 몹시 바빠하고있다.

작가인 그에게 있어서 현실체험은 참으로 귀중하지.

언니를 그리는 재순이의 마음도 이 편지에 다 담았으니 그가 붓을 들지 못했다고 섭섭해하지 말아.

그럼 이젠 그만 쓴다.

조카, 평양에서 만나기 바란다.

평양시 대동강구역 옥류1동 54인민반
리용덕삼촌어머니 보냄

활발해지는 협력과 교류

세계적으로 고국의 경제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있다.

지금 고국에서는 경제강국건설이 그 어느때보다 폭넓게 진행되고있으며 또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관계를 보다 확대해나가고있다.

그것은 제17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를 놓고도 잘 알수 있다.

이번 전람회에는 중국, 도이췰란드, 말레이시아, 스위스, 오스트랄리아, 꾸바를 비롯한 10여개 나라의 300여개 회사들이 참가하였다고 한다.

전례없이 많은 회사들이 참가한 이번 전람회를 통하여 평양국제상품전람회의 지위와 역할이 계속 높아지고있다는것과 고국과의 무역거래를 희망하는 나라들이 나날이 늘어나고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출품된 전시품들을 보면 전자, 기계, 금속, 건재, 운수, 식료, 일용 등 경제 여러 부문에서 선진과학기술을 도입하여 생산한 제품들이다.

이번에 고국의 여러 회사들에서 출품한 전시품들은 그 모양이 보기도 좋았고 질 또한 괜찮았다.

전람회가 진행되는 기간 여러 나라 회사들사이의 과학기술교류와 투자 등 다방면적인 협력을 위한 사업도 진행되였다.

우리 회사는 장기적으로 가구생산자재와 건축내부장식자재 등에서 고국과 무역거래를 하고 있다.

우리는 전람회에 판재류, 도색칠감류, 접착제류 등을 출품하였는데 고국의 많은 고객들이 상품에 대해 만족을 표시하였다. 하여 고국의 여러 회사, 기업소들과의 몇건의 거래계약도 맺을수 있었다.

이것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있으며 고국과의 경제교류와 협력을 더 잘해나갈 결심을 가지게 한다.

앞으로 고국의 경제발전에 특색있는 기여를 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심양조순무역유한공사 량비호

전람회장의 일부

고국방문

끝없는 경모의 정에 넘쳐

—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재로조선공민중앙협회,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 대표단 —

지난 2월 광명성절을 맞으며 재로조선공민중앙협회,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 대표단이 조국을 방문하였다.

대표단성원들은 만경대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옥류아동병원 등 평양시의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최신식 의료설비들을 그쯘히 갖추고 어린이들의 종합의료봉사기지로 일떠선 옥류아동병원을 찾은 동포들은 세계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병원이 많다, 그러나 어린이들의 심리적특성까지 헤아려 건설된 아동병원에 대해서는 들은적도 본적도 없다고 말하였다.

제18차 **김정일**화축전장을 돌아보는 동포들

높은 수준에서 꾸려진 문수물놀이장에서 동포들은 운동도 하면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였다.

그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탄생 72돐경축 중앙보고대회, 제18차 **김정일**화축전, 제23차 광명성절경축 백두산상국제휘거축전을 비롯한 여러 경축행사들에도 참가하였다.

한평생 오로지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의 자욱을 새기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넘쳐흐르는 축전장과 행사장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은 절세위인에 대한 열화같은 경모의 정에 넘쳐있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의장 최은복은 말하였다.

《조국에서 광명성절을 맞고보니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에 눈시울이 젖어듭니다. 장군님께서 계시였기에 우리 해외동포들은 조선민족된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애국의 길을 꿋꿋이 걸어올수 있었습니다.

사상도 령도도 어버이장군님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조국땅우에는 강성부흥의 래일을 그려보는 경이적인 성과들이 이룩되고있습니다. 우리는 어버이장군님을 따르던 한마음으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받들어모시며 그이의 령도를 량심과 의리를 다하여 따르는 참된 애국동포가 되겠습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김영호

광명성절경축 수중체조무용모범출연을 관람하는 동포들

옥류아동병원을 찾은 동포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돌아보는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대표단

태양의 모습

2년만에 조국을 방문한다. 그동안 조국은 몰라보게 변하였다.

한해가 다르게 변모되는 조국의 모습은 말그대로 약동하는 기상이다.

이번에 내가 제일 깊은 감명을 받은 곳은 경사로운 광명성절을 맞으며 진행된 제18차 **김정일**화축전장이였다. 그렇듯 성대하고 황홀한 꽃축전은 처음본다.

한평생 조국의 강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바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인민의 그리움과 경모의 정에 떠받들려 펼쳐진 영생축원의 꽃축전에는 조국의 인민들과 총련중앙상임위원회 그리고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해외동포들, 주조 여러나라 외교대표부들과 국제기구대표부들, 외국의 친선 및 련대성단체들과 인사들, 화교들이 참가하였다.

정성껏 피운 태양의 꽃 한송이한송이를 보면서 내가 느낀것은 장군님은 우리 인민뿐이 아니라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태양으로 영생하시며 절세위인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흠모의 마음은 해가 가고 날이 갈수록 더해만진다는것이였다.

오늘 조국인민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날에날마다 세인을 경탄시키는 기적을 창조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진보적인류의 흠모의 마음은 대하를 이루고있다. 나의 친구들과 내가 만나본 사람들이 그이를 두고 《대담하고 통이 큰 령도자》, 《천재중의 천재》라고 말할 때마다 위대하신 원수님을 모신 조국의 해외공민된 긍지와 자부심이 저절로 높아지게 되고 조국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려는 결의를 더욱 굳게 가다듬게 된다.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조국과 조국통일을 위한 사업에 나의 적은 힘이나마 적극 이바지하겠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베이징시지부 리룡칠

놀라운 현실

조국에 와서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그가운데서도 문수물놀이장에서 받은 감흥이 참으로 크다. 지난 기간 문수물놀이장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으나 정작 와서 보니 이렇게까지 크고 웅장할줄은 미처 몰랐다. 놀라지 않을수 없다.

각종 물미끄럼대와 수조들로 꾸려진 야외물놀이장과 종합적인 실내물놀이장, 실내체육관, 문수기능회복원 등으로 이루어진 문수물놀이장이 차지하는 면적은 무려 10만 9 000㎡에 달하였다.

각종 물놀이수조, 한증탕, 샤와실, 운동실, 실내체육관, 편의봉사시설 등 물놀이장의 어느곳에 가보아도 흠잡을데 없이 훌륭히 꾸려져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 있었다.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마음껏 웃고 떠드는 조국인민들의 모습은 긴 설명이 없이도 인민들을 위해 베푸는 공화국의 은덕이 얼마나 뜨겁고 크나큰가를 온넋으로 절감하게 하였다. 인민을 위해서라면 천만금도 아끼지 않고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는 우리 조국이기에 인민들에게 이런 훌륭한 물놀이장을 안겨주는것이다.

사계절 물놀이를 즐기며 휴식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건들이 그쯘히 갖추어져있는 평양의 자랑 문수물놀이장, 바라보면 볼수록 인민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우리 조국에서만이 건설될수 있다는것을 나뿐이 아닌 해외동포들 모두가 가슴뿌듯이 느끼게 한다.

숭고한 인민관, 미래관에 떠받들려 건설된 문수물놀이장에 울려퍼지고있는 인민의 랑만넘친 웃음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는 세세년년 울려갈것이다.

재로조선공민중앙협회 리채선

애국의 불빛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사무장 김영옥동포는 조국에 올 때마다 평양의 밤거리를 자주 거닐군 한다.

끝없이 걷고싶은 아름다운 평양의 밤이다.

얼마전 김영옥동포는 불밝은 승리거리를 조용히 걸었다.

곧게 뻗은 거리에 서있는 키높은 가로등들에서 부드럽게 흘러나오는 밝은 불빛에 보람찬 하루일을 마치고 정든 집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환히 보이였다.

조국의 밝은 래일을 약속해주는 평양의 밤은 언제나 그에게 이름할수 없는 추억을 안겨주고있었다.

하다면 김영옥동포의 추억은 돛을 달고 어디로 흘러가고있는지…

세해전 12월 어느날이였다.

그날은 김영옥동포에게 있어서 한생 잊을수 없는 날이였다.

그는 중국의 어느 한 역에서 레드등수송대책을 세우고있었다.

하나하나의 물자들을 정성껏 포장하는 그의 가슴속에는 조국을 위하여 적은 힘이나마 바치게 되였다는 긍지가 넘치고 얼굴에서는 기쁨의 미소가 가실줄 몰랐다.

조국땅 가는 곳마다 강성국가건설의 힘찬 동음이 울려퍼지고 그 어디에서나 전력에 대한 수요가 나날이 늘어나고있는 현실적조건은 그에게 평양의 거리들에 세워진 가로등들에 끼운 백열등을 레드등으로 바꾸게 되면 많은 전기가 절약되게 될것이라는 생각을 안겨주었다.

레드등은 백열등이나 콤팍트등보다 전기를 훨씬 절약하면서도 밝은 빛을 낼수 있고 전압안정구간이 넓고 사용수명이 긴것으로 하여 현대조명의 추세로 되고있었다.

그는 온 한해동안 크고작은 도시의 거리들과 조명을 전문으로 생산하고 판매하는 공장, 백화점들을 빠짐없이 다니였다. 하여 레드등들의 질과 가격 등 제기되는 모든 지표들을 빠짐없이 장악하였다.

제작원가가 낮고 전력계통과 주변 전자장치들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리상적인 환경보호형기술을 도입한 레드등이 평양의 거리마다 밝은 빛을 뿌리게 될 그날을 그려보며 그는 힘든줄을 모르고 사업에 열중하였다.

몸은 비록 해외에 있어도 조국의 인민들과 꼭같이 기쁜 일이 있어도 불러주고 어려워할 때면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준 어머니조국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자신의 힘과 지혜와 열정을 바치는것처럼 아름다운 인생이 있을것 같지 않았다.

그런데 그렇게도 자애롭고 친근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서거하시였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에 접하게 될줄이야.

김영옥

김영옥동포는 그 소식을 듣고 주저앉았다. 하늘이 무너져앉은것만 같았다.

더 밝아진 평양의 거리를 지나가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모습을 그려보며 힘든줄 몰랐던 그였다.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에서 무은 추모대표단이 조국으로 향하였다.

김영옥동포는 금수산태양궁전에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눈물속에 뵈웠다.

그는 한평생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불철주야 먼길을 헤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의지를 심장에 새겨안은 해외공민으로 살 불타는 맹세를 다지고다지였다.

그 맹세를 안고 흘러온 나날에 그는 애국의 마음이야말로 그 어떤 바람에도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빛이라는것을 깊이 느끼게 되였다.

그는 오늘도 누가 알아주건 말건 묵묵히 서서 밝은 빛을 뿌려 앞길을 밝히는 거리의 가로등처럼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 자기의 애국의 마음을 아낌없이 바쳐갈 일념으로 삶의 자욱자욱을 떼고있다.

본사기자 연 옥

조국을 잘 알 때

흔히 사람들은 애국에 대해 말하군 한다.

애국은 나라를 사랑한다는 말이다. 하다면 해외동포들에게 있어서 애국은 어떻게 표현되여야 하는가.

나는 그 답을 자기 조국을 위해 일하는 길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뭐니뭐니해도 자기 조국에 대해 잘 아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이런 생각을 굳히게 된 계기가 있다.

중국 길림성 구태시에서 사는 나는 몇해전까지만 하여도 조국에 대해 잘 모르고있었다. 그 원인은 내가 길림시와 같이 동포들이 많이 살고있는 지역들에서 멀리 떨어져사는데 있었고 한편으로는 우리 조국에 대해 하는 거짓선전을 많이 들은데도 있었다.

그러한 때 나는 김영녀 재중조선인청년련합회 위원장을 여러차례에 걸쳐 만나게 되였다. 그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나를 위해 생활에서 애로되는 문제를 해결해준것을 비롯하여 많은 왼심을 써주었다. 나는 그를 통하여 한피줄을 나눈 혈육의 정을 느끼게 되였으며 그 과정에 동포조직에 대한 애착심이 싹트게 되였고 점차 조국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였다.

속담에 백번 듣는것보다 한번 보는것이 낫다는 말이 있다. 그후 나는 조국땅에 가보고싶은 충동을 누를길 없어 2011년 7월 재중동포청년들과 함께 조국을 처음으로 방문하였다.

기차를 타고 평양역에 내리는 순간 나의 가슴은 뭉클해졌다. 우리 일행을 위해 조국의 해외동포원호위원회 일군들을 비롯한 여러 일군들이 한사람한사람의 손을 잡아주며 반겨맞아주었다. 이것은 돈이 많아야 사람대접을 받는 사회에서는 찾아볼수 없는 일이였다.

나의 감동은 조국방문과정에 더욱 커졌다.

어느날 우리는 륙로로 백두산답사를 하게 되였는데 뜻밖에 한 일군이 찾아오더니 비행기가 우리를 기다리고있다고 알려주는것이였다. 정말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이기에 10여명밖에 되지 않는 해외동포들을 위해 특별히 비행기까지 동원된단 말인가. 그때 우리모두는 눈물을 흘리였다.

돌이켜보면 나는 지금까지 4차에 걸쳐 조국을 방문하였다. 그 과정에 분에 넘치게도 국가적인 큰 행사에 참가하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사진도 찍었고 조국에서 새로 일떠세운 현대적인 문수물놀이장이며 미림승마구락부 등에서 조국인민들보다 먼저 락을 누리였다.

바로 이것이 조국의 품이였다. 한민족이라면 그가 어디에 살건 한품에 안아주는 품, 멀리 있는 자식에게 더욱 마음을 쓰는 어머니처럼 이역에 사는 동포들을 위해 숙소에서, 병원에서, 참관로정마다에서 그리도 세심히 보살펴주고 내세워주는 품, 조국인민들모두가 하나의 대가정이 되여 친절하고 화목하게 사는 이 대지가 바로 내 조국이구나 하는 생각이 나의 가슴을 푹 적셔주었다.

사랑에는 보답이 따라야 한다. 하기에 나는 조선민족의 한 성원으로서 조국앞에 도리를 다하기 위하여 애국사업에 나섰다. 지난해 11월 동포청년조직의 일군이 된후에는 동포청년들과의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나는 가끔 동포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하군 한다.

—누구나 자기의 삶을 값있게 빛내이려면 애국을 해야 한다. 그 애국의 마음은 자기 조국을 잘 알 때 비로소 흔들림없이 실천으로 이어지게 된다.

나는 앞으로 새 세대 동포청년들이 애국의 대, 민족의 대를 굳건히 그리고 변함없이 이어가도록 하는데서 밑거름이 되겠다.

재중조선인청년련합회
길림지구협회 회장 김창옥

침략자들의 말로를 보여주는 곳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는 이런 자료가 있다.

《적살상 및 포로 156만 7 128명
그중 미군 40만 5 498명
남조선괴뢰군 113만 965명
비행기격추, 격상, 로획 1만 2 224대
땅크격파, 로획 3 064대
자동차격파, 로획 1만 3 350대
함선 및 선박격침, 격파, 로획 564척
각종 포격파, 로획 7 695문
각종 저격무기로획 92만 5 152정
…》

이 수자들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주체39(1950)년 6월 25일—주체42(1953)년 7월 27일) 영웅적조선인민군과 조선인민이 거둔 전과의 일부이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로획한 미제침략군의 땅크들

100여년의 전쟁사상 패한적이 없다던 미국의 살인장군들과 《상승》사단들이 실지 저들이 도발한 조선전쟁에서 패전장군으로, 전멸사단의 운명을 면할수 없었다.

기념관에 전시된 초췌해서 머리를 푹 숙이고 서있는 미 제1해병사단 사단장 스미스를 형상한 랍상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미제침략군에서 해병대는 전투력이 그중 강하다는 무력이며 특히 1해병사단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에서 《명성》을 떨친

조선인민군 해군에 의하여 나포된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

미제침략군직승기 《OH—23D》와
미제침략군의 전투기 《F—86D》의 잔해

사단이였다.

그런 사단이 조선에서 완전히 괴멸되여 사단장스미스는 《무덤장군》이라는 칭호까지 받았다.

뿐만아니라 《상승사단》이라고 으시대던 미 제24보병사단은 대전에서 완전포위되였으며 사단장 띤은 병사복을 갈아입고 도주하던중 조선인민군 전사에게 포로되여 전세계앞에서 미제의 《강대성》의 신화가 어떤것인가를 보여주었다.

지난 조선전쟁시기 《유엔군》사령관으로 들어앉았던 클라크의 고백은 전쟁에서 미제가 어떤 운명에 처하였는가를 잘 알게 해주고있다.

《…나는 실패감을 느끼고있다. 나의 선배들인 더글라스 맥아더와 매튜휴 릿지웨이장군들도 같은 심정일것이다. …》

3년간의 조선전쟁에서 미국의 한명의 대통령과 두명의 극동군총사령관, 한명의 8군사령관이 패전의 책임을 지고 실각, 철직되고 한명의 8군사령관이 즉사하였으며 한명의 대통령과 한명의 극동군총사령관, 한명의 8군사령관이 패전장군으로 력사에 기록되였다.

하지만 조선전쟁의 교훈을 망각하고 오늘까지도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행위를 끊임없이 감행하다가 처참하게 얻어맞고 만신창이 된 미제의 몰골을 기념관의 패배 및 로획무기전시장에 전시된 로획무기들중의 일부를 통하여 잘 알수 있다.

전시장에는 조국해방전쟁시기의 로획무기들뿐이 아닌 영웅적조선인민군에 의해 주체52(1963)년 5월에 나포된 미제침략군직승기 《OH—23D》와 주체53(1964)년 1월에 격추된 미제침략군전투기 《F—86D》의 잔해, 주체57(1968)년 1월에 나포되여 코를 꿰인채 보통강에 못박혀있는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 등이 있다.

그것들은 미제의 침략야망은 절대로 변하지 않았으며 불을 즐기는자들에게 어떠한 운명이 차례지는가를 똑똑히 보여주는 산 증거물들이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 전시된 유물들과 자료들은 공화국과 미국의 대결에서 결말이 어떻겠는가 하는것을 명백히 시사해주고있다.

조선전쟁시기 미국방장관이였던 마샬의 고백을 상기해본다.

《신화는 깨여지고말았다. 우리는 남들이 생각하던것처럼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였다.》

글 본사기자 윤영일
사진 본사기자 최원철

상 식

신문지로 음식물을 싸면

음식물을 신문지나 화보지로 싸는것이 좋지 않다.

인쇄잉크에는 몸에 해로운 물질들이 들어있다. 만일 신문지로 음식 특히는 더운 음식물을 싸면 독성물질이 음식물에 붙어 몸안으로 들어간 다음 간과 뇌에 모이게 되여 해를 준다.

화보 한페지에는 200mg의 연이 들어있다.

어느 한 나라의 식료품위생기준에는 연과 접촉한 식료품의 연함유량이 1kg당 1mg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되여있다. 연은 몸안에 들어가 만성중독을 일으키는데 신경, 조혈기, 소화기계통 등에 나쁜 영향을 준다.

이런 독성물질은 농약처럼 먹자마자 반응하는것이 아니라 몸안에 쌓였다가 일정한 량이 되면 병을 일으킨다.

선군정치의 새 력사를 펼치시여

1990년대 중엽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은 우리 민족이 당한 대국상을 계기로 반사회주의, 반공화국대결책동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거기에다 여러해째 계속된 혹심한 자연재해로 하여 조국은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였다.

세계정치계가 조선에서의 변화를 론하며 주시하고있던 시기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선군정치방식을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전면적으로 확립하시였다.

주체84(1995)년 1월 1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다박솔초소에 대한 력사적인 현지시찰로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 나라의 기둥으로 하여 선군정치를 보다 높은 단계에서 전면적으로 실현하실 자신의 확고한 결심을 온 세상에 엄숙히 공포하시였다.

주체87(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 국방위원회를 중추로 하는 새로운 국가기구체계가 발표됨으로써 선군정치의 법적, 제도적담보가 확고히 마련되게 되였다.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를 따라 부강조국건설의 도약대를 마련하기 위한 투쟁에 일떠섰다.

인민군군인들은 혁명의 주력군, 나라의 기둥답게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조국방선을 철벽으로 지키면서도 청류다리(2단계)와 금릉2동굴, 평양—향산관광도로건설 등 인민경제 중요대상건설장들에서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켰다. 특히 안변청년발전소건설과정에는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 영웅적희생정신을 기본핵으로 하는 혁명적군인정신이 창조되고 높이 발양되였다.

온 사회에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배우기 위한 운동이 고조되는 속에 자강도인민들이 발휘한 불굴의 투쟁정신인 강계정신은 온 나라에 고난의 행군을 이겨내기 위한 투쟁의 불길이 타번지게 하였다.

강계정신에 원천을 둔 성강의 봉화가 세차게 타번지고 금속, 기계공업 등 인민경제 기간공업부문들을 활성화할수 있는 토대가 닦아지게 되였다. 량강도 대홍단군에서는 감자농사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 황해남도 연안군과 자강도 장강군에서 두벌, 세벌농사의 경험이 창조되였다. 또한 강원도에서 토지정리를 위한 첫 포성이 울린데 이어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의 토지가 정리되였으며 현대적인 가금목장들과 양어장들 등이 건설되였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어려운 속에서도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에로 끌어올렸으며 주체87(1998)년 8월 31일에는 첫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1》호를 성과적으로 발사하였다. 그 이후에도 자기의 힘과 기술로 여러차에 걸쳐 인공지구위성발사와 핵시험에서 성공하여 공화국을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 핵보유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려세움으로써 주체조선의 국력, 과학기술의 위력을 온 세계에 힘있게 과시하였다.

새 세기에 들어와서도 군대와 인민은 힘찬 로력투쟁을 벌려 선군시대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새로운 천리마속도, 희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2》호
의 성과적발사

CNC설비들이 생산된다.

천속도와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 함남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경제강국건설에서 경이적인 사변들을 다계단으로 펼쳐놓았다.

희천의 로동계급은 새 세기 산업혁명의 봉화를 높이 추켜들고 현대적인 대형복합가공중심반을 비롯한 최첨단 CNC설비들을 생산해냈다.

함남의 로동계급과 인민들은 완강한 공격전의 기상, 제힘으로 세계에 솟구쳐오르려는 강한 민족자존의 정신, 자기 고장, 자기 일터에서 강성부흥의 대문을 남먼저 열어제끼려는 선구자의 기질을 높이 발양시켜 2. 8비날론련합기업소의 생산공정의 현대화, 흥남비료련합기업소의 갈탄가스화 1계렬공사의 완공, 룡성기계련합기업소에서의 선군주철공장과 선군압축기직장 건설, 대흥청년영웅광산과 단천마그네샤공장에서의 마그네샤이트공업의 주체화, 국산화를 실현하였으며 단천항건설에서 세인을 경탄시키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였다.

농업부문에서는 알곡정보당 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투쟁과 대규모 과수종합농장과 양어장들을 현대적으로 개건, 건설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려 인민들이 실지 그 덕을 볼수 있게 하였다.

인민군군인들은 공사의 첫 삽을 박은 그날부터 희천발전소건설장에서 《단숨에》의 공격정신과 기상으로 10년이상 걸려야 한다던 대규모동력기지건설을 3년동안에 끝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만수대거리와 창전거리 등 짧은 기간에 현대적인 거리들이 건설되여 수도 평양시의 면모를 일신하였으며 전국의 지방도시들과 농촌들에서도 지방의 특성에 맞는 살림집들이 새로 건설되여 선경도시, 선경마을들이 줄지어 일떠섰다.

뿐만아니라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계기로 광복지구상업중심, 보통문거리고기상점, 보통강백화점, 인민극장, 류경원, 인민야외빙상장, 릉라인민유원지, 릉라곱등어관을 비롯한 현대적인 상업봉사기지, 문화후생시설들이 훌륭히 건설되여 인민들에게 커다란 기쁨을 안겨주었다.

공화국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더 높이 추켜드신 선군의 기치밑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헌장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미제를 비롯한 반통일세력을 제압하고 조국통일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놓았다.

주체89(2000)년 6월과 주체96(2007)년 10월 두차례의 북남수뇌상봉이 이루어지고 6. 15북남공동선언과 10. 4선언이 채택되였으며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6. 15시대가 펼쳐져 북과 남사이의 화해와 협력의 관계가 여러 분야에서 심화발전되였다.

하여 주체94(2005)년에는 분렬이후 처음으로 북과 남, 해외가 당국과 민간의 구분이 없이 우리 민족끼리 6. 15와 8. 15를 기념하는 민족통일대축전을 함께 하는 경이적인 사변이 펼쳐졌다. 그리고 북과 남의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여러차례에 걸치는 평양과 서울, 금강산에서의 상봉 등 북남사이의 래왕과 접촉이 활발히 진행되였을뿐아니라 체육문화교류사업도 전례없이 활발히 벌어졌다.

공화국의 정력적인 대외활동에 의하여 조중, 조로관계발전도 새로운 시대적요구에 맞게 더욱 강화되고 유럽동맹과 이딸리아, 영국, 도이췰란드를 비롯한 수많은 나라들과 외교관계가 수립됨으로써 날로 더욱 높아가는 선군조선의 대외적권위가 뚜렷이 과시되였다.

오늘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강령적지침으로 틀어쥐고 한치의 드팀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선군정치의 력사는 변함없이 계속 흐르고있다.

력사연구소 연구사 강혜성

인민의 락원으로 꾸려진 창전거리

새로 발굴된 고구려시기 무덤떼

최근년간 평양시 대성구역 대성동에서 고구려시기의 무덤떼가 발굴되였다.

무덤들은 대성산 국사봉의 남동쪽 산기슭에 위치하고있으며 주변에는 고구려가 427년에 집안(중국)으로부터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면서 건설하였던 안학궁터와 대성산성 등과 함께 1 000여기의 고구려무덤들이 분포되여있다.

새로 발굴된 대성동 무덤들은 돌로 무덤칸을 축조하고 그 우에 흙으로 봉분을 쌓은 전형적인 고구려돌칸흙무덤이다. 이 무덤들은 안길과 안칸으로 이루어진 외칸무덤으로서 방향은 서쪽으로 약간 치우친 남향이다.

발굴당시 무덤의 봉분과 뚜껑돌들은 파괴되여 없어지고 무덤칸 벽의 일부가 땅우에 드러나있었다.

무덤떼에서는 고구려시기 벽화무덤 1기가 발굴되였다. 안길의 크기는 남북길이 2m, 동서너비 0. 8m이며 현재 남아있는 안길벽의 높이는 0. 8m정도이다.

무덤안칸의 크기는 남북길이 2. 7m, 동서너비 1. 55m로서 장방형을 이루고있으며 남아있는 벽높이는 동쪽벽이 1. 1m, 서쪽과 남쪽벽이 각각 0. 77m, 북쪽벽이 0. 93m이다.

무덤의 안길은 동쪽으로 완전히 치우쳐있으며 남쪽끝에는 두개의 길죽한 돌을 세워 안길의 막음돌로 하였다. 안칸의 벽은 적당히 가공된 돌들을 아래에서부터 서로 엇물려 올려쌓았으며 벽면은 회죽으로 반듯하게 미장하고 벽화를 그렸다.

동쪽벽면에 청룡, 서쪽벽에 백호, 북쪽에 현무가 그려져있으며 네 벽의 모서리부분에는 붉은 기둥들이 형상되여있다.

특히 동쪽벽에 그려진 청룡이 비교적 잘 남아있다. 또한 무덤안칸의 바닥에서는 금귀걸이장식들과 고리자루손칼 그리고 웃부분에 얇은 은판을 씌운 관못 등과 같은 유물들이 나왔다.

대성동벽화무덤은 그 구조형식과 벽화내용이 이미 알려진 고구려무덤들인 로산동 1호무덤, 우산리 3호무덤과 비슷한것으로 보아 3~4세기경에 만들어진 무덤으로 인정된다.

대성동벽화무덤은 무덤에 그려진 벽화와 발굴된 유물자료들을 통하여 고구려의 우수한 회화술과 금속공예술, 무기제작술 등을 밝힐수 있는것으로 하여 동방의 천년강국이였던 고구려의 력사와 문화연구에서 가치있는 유산으로 된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윤영일

북쪽에서 본 무덤과 무덤의 동쪽벽화

유물들의 일부

조 선 범

조선범(조선, 중국 동북지방, 로씨야의 원동지방)은 다른 종들보다 크고 날쌔며 용맹스럽고 털가죽의 무늬가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조선범은 비교적 몸집이 크고(몸길이 2.8m정도, 몸질량 100~306kg, 꼬리길이 95cm정도) 잔등은 누런 밤색이며 배와 네 다리안쪽은 흰색이다. 이마에서 대가리꼭대기에 이르는 부분에 임금왕(王)자모양의 검은 무늬가 뚜렷이 나있고 잔등에는 24개, 배에는 5개의 검은줄이 가로놓여있으며 꼬리에는 8개의 검은 고리무늬가 나있다.

범은 깊은 산림속이나 울창한 수림속에서 혼자 산다. 낮에는 바위굴이나 덤불속에서 자다가 밤에 나타나 사슴, 노루, 산양, 메돼지, 들양, 승냥이, 늑대 등을 잡아먹으며 거부기, 물고기, 메뚜기 등도 잡아먹는다고 한다. 굶주렸을 때에는 가시도치에게도 덤벼든다.

동작이 빠르나 먹이동물을 멀리까지 추격하는 일은 드물고 길목을 지키고있거나 몸뚱이를 바싹 낮추고 살금살금 소리없이 풀숲을 기여나가 먹이동물과의 거리가 가까와지면 단숨에 달려들어 날카로운 송곳이로 목을 물어끊거나 대가리를 물고는 앞발로 목뼈를 쳐서 부러뜨려 죽인다. 잡은 먹이를 입에 물고 제가 좋아하는 곳으로 옮긴다. 늙어서 날래지 못한 범은 마을에 내려와 집짐승을 해치는 일도 있다.

범은 적을 공격할 때는 귀를 세우고 귀뒤쪽의 흰털을 보이며 자기를 지킬 때에는 귀를 눕히고 입을 벌려 송곳이를 드러낸다.

일정한 구역을 차지하고 살지만 먹이가 부족할 때에는 하루밤에 300~400리까지도 이동한다. 더울 때에는 물에 들어가 꼬리로 물을 끼얹으면서 몸식히기를 즐긴다.

나무우로는 잘 오르지 못하지만 헤염은 잘 친다. 범은 동작이 매우 날래고 힘이 세여 너비가 6~8m되는 장애물도 뛰여건느고 높이가 2~3m되는 벼랑에도 뛰여오르며 어떠한 큰 짐승도 단매에 넘어뜨리므로 예로부터 뭍짐승의 《왕》으로, 날래고 용맹한것의 상징으로 되고있다.

범은 단독성이지만 사회성도 상당히 강하여 린접세력권의 개체들끼리는 서로 잘 알고있으며 우

사 화

대포에서 터져나온 샘

갑오농민전쟁때 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하여 동원된 관군이 대포를 쏘려고 하자 대포구멍에서 물이 쏟아져나와 귀신의 조화라고 기절할 정도로 놀랐던 일이 있었다.

이 놀라운 일은 어떻게 되여 생긴것인가.

그때 관군은 충청남도 례산군에 진을 치고 여러문의 대포까지 걸어놓고있었다.

평상시에 훈련도 하지 않고 규률도 없었던 관군인지라 녹이 쓴 칼과 창, 좀이 든 활을 메고 상투우에 벙거지를 올려놓고 무리를 지어다니는 꼴은 군대라기보다 할 일이 없는 건달무리같았다고 한다.

관군의 군졸들은 주린 배를 채우려고 민가에 달려들어 개와 닭을 후려가고 눈에 뜨이는 물건은 보따리에 싸넣기에 눈이 벌개 돌아쳤다.

그러나 농민군은 량반관료들과 관청의 재물을 빼앗아 가난한 주민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들을 성심성의로 도와주었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어느 한 마을에 들린 농민군은 마을사람들과 한데 어울려 관군을 때려눕히던 이야기로 웃음꽃을 피우고있었다.

이때 한 사람이 관군의 진에서 큰 쇠대포를 본 이야기를 하였다.

《글쎄 그 대포알이 터지면 벼락치는것 같다니 사람인들 얼마나 상하겠나요.》

이렇게 아낙네들이 근심에 싸여 말하는데 대포를 보았다는 사람이 녀인들을 핀잔하며 《그렇게 남정들이 근심스러우면 그놈의 쇠대포아구리를 치마폭으로 막아서구려.》라고 하였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 아낙네들은 우물가에 모여서도 쇠대포소리였고 빨래터에 모여서도 쇠대포소리였다.

한 아낙네가 쇠대포는 불을 달아야 터지는 물건이라는데 물 한동이면 대포 한알을 막을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묘안을 내놓았다.

그날밤이였다.

몇명의 아낙네들이 물동이를 이고 관군이 있는 성근방에 모여들었다.

그들이 숨을 죽여가며 성안을 엿보는데 개구리 한마리가 성우에서 뛰여내렸다. 그러자 녀인들은 쇠대포아구리에 물과 함께 개구리와 올챙이, 알까지 넣자고 하였다.

그래서 관군의 쇠대포들은 모두 개구리가 섞인 한동이씩의 물을 먹었다.

며칠후 농민군이 성으로 진격해왔다.

포장들은 《대포를 쏘앗!》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어느 한 대포에서도 포알은 나가지 않고 아구리에서 샘이 터져나왔다. 군졸들은 비명을 질렀다.

《웬일이냐?》

《대포에서 샘이 터져나옵니다.》

《쇠대포에서 샘이 나오다니?…》

《하늘이 조화를 부리는줄 압니다.》

포장은 어리둥절하여 제 손으로 대포고리를 당겨보았다. 그러자 누런 물이 왈칵 쏟아져나와 몸을 적시였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물만이 아니라 개구리와 올챙이, 알까지 쏟아져나와 파들파들 떨고있었다.

포장과 군졸들은 공포에 떨었고 포 한방 쏴보지 못하고 농민군에게 패하고말았다.

이런 일이 있은후부터 관군은 농민군소리만 나도 숨조차 쉬지 못하고 도망을 쳤으며 주민들은 농민군을 더 따르며 물심량면의 지원을 주었다고 한다.

* * *

호적이라고 한다. 쌍붙는 시기는 일정하지 않으나 보통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이며 새끼배는 기간은 100~110일이다. 2~3년 건너서 한배에 2~4마리, 드물게 5~6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새끼는 낳은후 5~6달이면 젖을 떼며 8~11달이 지나면 사냥을 배운다. 2살까지 어미를 따라다니며 4살이면 다 자라고 15살까지 새끼낳이를 한다. 15살이 지나면 늙고 약 25살까지 산다.

털가죽의 질이 매우 좋으며 고기와 뼈, 살가죽과 털, 발톱에 이르기까지 약재로 쓰이지 않는것이 없다.

원래 조선범은 우리 나라 북부 높은 산지대로부터 전라남도에 이르기까지 널리 퍼져있었으나 일제의 군사적강점시기와 또 미제가 도발한 전쟁시기에 많은 피해를 입어 지금은 북부 높은 산지대에만 희귀할 정도로 남아있다.

국제보호대상동물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량강도 대홍단군, 삼지연군에 사는 범을 천연기념물(백두산조선범)로 지정하고 보호하고있다.

윤흥기

반일애국렬사 안중근

안중근(1879—1910년)은 일제의 조선침략의 원흉 이또 히로부미를 처단한 반일애국렬사이다.

황해남도 해주에서 태여난 그는 어려서부터 정의감이 강하고 성품이 강직하였다. 그는 조국의 력사를 깊이 연구하고 선조들의 애국활동에 관심을 가졌으며 사격술도 꾸준히 련마하였다. 일찍부터 군사학을 연구한 그는 자기 집 재산을 팔아서 무기도 구입하였으며 지방소년들로 《향군회》를 조직하고 군사훈련도 은밀히 하여왔다.

1907년에 일제는 《정미7조약》을 날조하고 조선군대까지 강제해산시키였다. 이에 격분한 그는 룡강일대에서 의병을 조직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탄로되여 1907년말 로씨야의 연해주로 망명하였다. 그곳에서 반일의병대를 조직하고 참모총장으로 활동한 그는 부대와 함께 1909년 6월 국내에 진격하여 일제침략군에게 타격을 주었다.

그 나날에 그는 조선침략의 원흉인 이또 히로부미를 처단할 결심을 더 굳게 다지였다. 울라지보스또크의 《대중공보사》에서 독립운동자 리강, 우덕순등과 손을 잡았으며 그후 류동하, 조도선과도 알게 되여 뜻을 같이하게 된 그는 그해 10월 이또가 로씨야재무대신 꼬꼬브쪼브와 만주침략문제를 둘러싸고 회담하기 위하여 할빈으로 온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그는 이 절호의 기회에 이또를 처단할 결심밑에 면밀한 계획을 짰다. 그러나 조도선, 우덕순이 책임진 조가 채가구역에서 이또를 처단하게 되였던 계획은 실패하였다. 혼자서 할빈을 담당한 안중근은 1909년 10월 26일 만단의 준비를 갖춘후 일제와 로씨야군경들의 삼엄한 감시망을 뚫고 《환영》군중속에 끼워 역홈으로 나갔다.

아침 9시 이또가 예정대로 할빈역에 도착하자 안중근은 권총으로 그자에게 조선민족의 원한이 서린 복수의 총탄을 안기여 사살하였다. 그리고 통쾌하게 《조선 만세!》를 소리높이 웨치였다.

안중근의 애국적장거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외의 의로운 사람들은 찬탄하여마지 않았으며 그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운동을 적극 벌리였다.

일제군경에게 체포되여 려순감옥에 갇힌 안중근은 일제교형리들로부터 악독한 고문을 당하였으나 민족적지조를 굽히지 않았다. 일제침략자들은 1910년 2월 14일 형식적인 재판놀음을 벌려 그에게 사형을 언도하였으며 3월에는 그를 학살하였다.

안중근은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애국적지조를 지켰으며 옥중에서 조국산천이 귀중하다는 뜻을 표명하여 《제일강산》이란 글을 썼고 일제침략자들을 동양평화의 교란자로 저주규탄하는 《동양평화론》이라는 긴 글을 지었다.

* * *

1910. 3. 10 려순감옥에서 동생에게 유언하는 안중근렬사

한여름철의 막걸리맛이 으뜸

무더위가 가실줄 모르는 한여름철에는 시원한 막걸리가 제격입니다.

물론 랭동기에서 금방 꺼낸 맥주나 사이다도 있겠지만 막걸리가 앞에 있다면 아마 그 모든것을 제껴놓고 막걸리부터 마시고싶을것입니다. 역시 조선사람에게는 음료도 조선의 막걸리가 제일인가 싶습니다.

요즘 우리 동문국수집으로는 막걸리에 맛을 들인 사람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있습니다.

지난 시기 평양랭면맛이 좋은것으로 알려져있던 우리 식당에서 몇해전부터 막걸리봉사를 시작한후 손님들의 호평이 대단합니다. 식당에 온 손님들은 평양랭면을 들기 전에 먼저 막걸리부터 찾습니다. 우리는 사시절 막걸리봉사를 하는데 지금과 같은 한여름철에는 수많은 손님들의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고있습니다.

일명 탁주 또는 탁배기라고도 부르는 막걸리는 오랜 옛날부터 우리 나라에서 만들어온 민족음료로서 색갈은 젖빛이며 술맛에 단맛, 신맛이 어울려 상쾌함을 자아냅니다.

막걸리는 문자그대로 막거른 술 또는 흐린술이라는데서 나온 이름입니다. 막걸리는 흰쌀이나 강냉이, 밀 등의 농마질원료에 누룩을 넣고 발효시킨 다음 채에 밭아낸 발효음료입니다.

막걸리는 사람의 건강에 매우 좋은 음료입니다. 막걸리를 마시면 근기가 있어 배고픔을 모르며 소화도 잘되게 하여 특히 위장이나 대장이 약한 분들에게 좋은 명약으로 됩니다.

동포여러분도 해외에서 민족의 향취가 넘쳐나는 막걸리를 맛보고계실런지.

이렇게 말이 난김에 우리가 만드는 막걸리맛의 비결을 아낌없이 펼쳐놓으려고 합니다.

막걸리만드는 방법은 지방마다 여러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걸리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한 책들도 많으나 우리와 함께 만들어보면 리해도 쉬우리라고 생각합니다.

막걸리는 흰쌀이나 찹쌀, 강냉이나 밀과 같은 낟알로 만듭니다.

흰쌀 1kg, 끓여서 식힌 물 10L, 누룩균(누룩을 띄우는데 쓰는 균) 10g, 사탕가루 200g을 가지고 만들어봅시다.

먼저 깨끗이 씻어 물을 찌운 흰쌀 200g을 보드랍게 가루냅니다. 이 쌀가루를 약간의 물과 함께 균 10g을 넣고 골고루 섞습니다. 이때 비닐과 천으로 잘 덮어놓고 온도계를 꽂아놓습니다. 하루지나면 자체내에 열이 생기는데 나무주걱으로 저어주고 더운 곳에서 신선한 곳으로 옮겨놓습니다.

우리가 막걸리를 만들며 얻은

경험에 의하면 누룩균은 온도가 23~28℃가 되였을 때 제일 잘 번식하며 곰팽이의 색갈은 누르스름한 색갈이 되여야 맛이 좋습니다. 3일째되는 날에는 나머지 흰쌀 800g으로 밥을 짓습니다. 뚜껑이 있는 바께쯔나 통에 흰쌀밥과 균배양한것을 함께 넣고 깨끗이 씻은 손으로 보드랍게 주무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끓여서 식힌 물 10L를 두고 사탕가루를 넣습니다. 이것을 꼭 봉인하여 30℃되는 곳에 24시간이상 놓아둡니다.

충분히 발효가 된 다음 그것을 채에 밭아냅니다. 채로 밭은 젖빛액체가 바로 우리가 만들려는 막걸리입니다. 이렇게 만든 막걸리는 랭동기안에서도 대체로 얼지 않습니다. 막걸리는 보통 알콜도수가 5~7%이며 풀림성영양물질은 3. 5~12%, 당도는 0. 5~2%, 산도는 0. 6~0. 85%입니다.

달고 찡하며 새큰한 맛이 어울려 감칠맛을 자아내는 막걸리, 별로 품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만들수 있는 막걸리를 동포여러분의 가정들에서도 만들어 온 가족이 함께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조국에 오면 미림승마구락부로 가는 길에라도 우리 동문국수집에 들러 시원한 랭면과 막걸리를 한번 맛보고 가십시오.

평양시 대동강구역종합식당
동문국수집 김춘화

수 기

분렬의 비극은 끝장나야 한다

지난 2월 금강산에서 북남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있었다.

나도 64년만에 동생과 조카를 만나보았다. 생각해볼수록 꿈만 같다.

그때 우리는 29번탁에서 만나게 되여있었다. 솔직히 말하여 나는 그때 동생을 알아볼 자신이 없었다. 한두해도 아니고 60여년간 헤여져있은 동생의 모습은 전혀 떠오르지 않았다. 조바심을 안고 29번탁앞으로 다가가는데 웬 녀성이 서있었다. 아무리 보아도 알수 없었다.

(저 녀성은 누구일가. 가만, 저 머리… 그래, 머리가 커서…)

이런 생각이 들자 저도 모르게 걸음이 빨라졌다. 녀인도 나를 자세히 보며 다가왔다.

최준규 (오른쪽)

《저, 남북머리라는 아명을 가지고있지 않았는지…》

그러자 그는 《오빠!》하며 달려왔다. 그는 나의 등을 주먹으로 쾅쾅 두드리며 격정을 터뜨렸다.

《이렇게 살아있으면서 그리도 할머니의 애간장을 태웠나요.》

(뭐, 할머니?)

순간 머리가 멩해졌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적들의 폭격으로 사망하였다던 할머니가 살아계시였다니…

일찌기 어머니를 잃은 나와 동생들은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다. 미국에 의해 전쟁이 일어나자 할머니는 나에게 쌀 한 배낭을 지워주며 침략자들과 싸우라고 양양소년근위대로 떠밀어주었다. 후에 인민군대에 입대한 나는 우리 부대 정찰병들이 할머니와 동생들의 사망소식을 가져왔을 때에 할머니의 따뜻한 품을 그려보며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였었다.

이런 생각에 잠겨 말없이 서있는 나를 바라보며 동생이 떠듬떠듬 말하였다.

《미군의 폭격속에서 다행히도 살아난 할머니와 우리가 얼마나 오빠를 찾았는지 알아요? 할머니는 오빠만을 찾다가 7년전에 사망하였어요.》

억장이 내려앉는것만 같았다.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들을 두고 60여년세월을 흘러보내다니…

동생이 할머니를 모시고 살아온 경위를 들으며 나는 분렬을 저주했고 그 장본인인 미국을 저주했다. 그러면서 나는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이 모셔져있는 아버지의 렬사증과 전국로병대회와 제2차 당세포비서대회,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 경축행사 등 여러 대회참가증들과 국기훈장 1급을 비롯한 훈장들 그리고 우리 가족사진을 내놓고 공화국북반부에서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동생과 조카에게 들려주었다.

공화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한생 군복을 입고있은 나와 아들, 딸, 손자, 손녀 모두 합하여 우리 가족 19명중에서 12명이 대학을 졸업하고 그가운데는 박사도 있다는 이야기며 내가 상한 다리를 치료받던 이야기 등을 들으며 놀라와하던 동생의 모습을 지금도 잊을수 없다.

언제인가 나는 다리를 상하게 되였다. 그때 나의 한쪽다리는 발뒤꿈치로부터 정갱이가 있는 곳까지 세곳이 부러졌는데 한토막은 다 부스러져 다리를 자르지 않으면 안되였다.

하지만 고향을 남조선에 둔 나를 어떻게 하나 꼭 걷게 하자며 병원의 의사들과 간호원들은 자기들의 뼈를 저마다 떼주었고 2. 5kg에 달하는 피도 서슴없이 수혈해주었다. 물론 무상치료였다.

깊은 감동속에 나의 이야기를 다 듣고난 동생과 조카는 하루빨리 조국이 통일되여야 한다, 꼭 통일이 되니 그때 온 가족이 한데 모여살자고 확신에 차서 말하였다.

지금도 나의 귀전에는 우리가 헤여지던 날 《오빠, 꼭 다시 만나자요.》하던 동생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그 목소리는 단순히 형제적의리로부터 터져나오는 말이 아니였다. 그것은 우리모두 힘을 합쳐 조국을 통일하고 꼭 다시 만나 함께 모여살기를 바라는 온 겨레의 념원이고 소원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렇다. 우리는 이제 더는 갈라져살수 없다. 분렬의 비극은 끝장나야 한다.

우리 겨레를 살리는 통일을 위해 참다운 애국의 기치,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굳게 단합하여 통일의 돌파구를 열어나가야 한다.

평안남도 평성시 중덕동
57인민반 최준규

전 설

금강굴의 명안수

묘향산의 금강굴옆에는 큰 바위밑에서 솟아오르는 수정같이 맑은 명안수(눈병에 특효가 있는 약수)라고 불리우는 샘물이 있다. 이 샘물로 눈을 씻으면 앓던 눈도 금시 밝아지고 성한 눈은 수정같이 빛난다고 한다.

이 샘물에는 이러한 전설이 깃들어있다.

향산골 아래마을에는 지주집에서 머슴을 사는 한 소년이 있었다.

소년은 어둑새벽에 일어나 온종일 고역에 시달리다가 밤이 깊어서야 소여물을 끓이는 헛간구석에서 쪽잠을 자군 했다.

그러던 어느해 봄부터 소년은 눈을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는데 날이 감에 따라 눈병은 더 심해져 검은 눈동자우에 안개가 끼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지주는 순간도 쉬지 못하게 했다.

이런 때 시주쌀을 받아가려고 중이 지주집에 왔다. 소년이 중에게 눈병을 고치는 약이 없는가고 묻자 중은 절에 와서 부처에게 정성껏 빌면 눈병이 나을수 있다고 하였다.

그날부터 소년은 주인의 눈을 피해가며 절에 가 부처앞에서 손이 닳도록 빌었으나 눈병은 나날이 더해졌다.

소년은 설음이 북받쳐 소리내여 울었다.

바로 이때였다.

전해 봄 소년이 나무하러 산에 갔다가 새알을 털어내려는 뱀을 때려죽이고 구원해준 둥지의 어미새가 나타나 그를 위로하듯 머리를 기웃거리며 구슬픈 소리로 지저귀더니 그의 머리우를 서너번 감돌고나서 앞서 날며 걸음을 재촉하는것이였다.

소년을 이끌고 가던 새는 머루덩굴과 이끼가 덮인 큰 바위에 내려앉아 바위짬에서 흘러내리는 샘물을 쪼아마시기도 하고 샘물에 머리와 눈을 적시기도 하였다.

소년은 새가 하는대로 샘물을 한모금 마시고나서 그 물로 눈을 씻었다. 그랬더니 희뿌옇게 흐렸던 눈이 금시 밝아졌다.

소년이 며칠동안 거기로 가서 샘물을 마시기도 하고 눈을 씻기도 했더니 눈병은 깨끗이 가셔지고 눈은 다시금 새별처럼 반짝이게 되였다.

소년이 샘물로 눈병을 고치였다는 소식은 삽시에 멀리까지 퍼져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와 눈병을 치료하였다.

이때부터 이 샘물은 명안수라고 불리우게 되였다 한다.

통일은 우리 민족끼리

—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참사 엄세룡과 본사기자의 대담 —

기자: 북과 남이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인 7. 4공동성명을 발표한 때로부터 42년이 된다.

공동성명의 기본내용인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을 제시하시고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민족의 평화적발전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로고와 업적이 되새겨진다.

엄세룡: 그렇다. 우리 수령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비준하여주신 문건도 조국통일문건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한평생은 말그대로 조국통일을 위한 한평생이였다.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다.

항일의 혈전만리 20성상 수령님께서 피어린 투쟁을 벌리여 찾아주신 조국은 하나의 조국이였지 분렬된 조국이 아니였다.

조국해방의 위업을 이룩하신 수령님께서는 항일대전에서 쌓인 피로도 푸실 사이없이 조국의 분렬을 막기 위하여 헌신의 날과 달을 보내시였다.

우리 겨레에게 조국통일의 기쁨을 안겨주시려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외세에 의하여 갈라진 나라의 통일을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이룩할데 대한 자주통일사상을 제시하시였다.

그 과정에 북과 남사이에 채택된것이 바로 7. 4공동성명이다.

7. 4공동성명은 우리 민족의 통일대강령이며 조국통일을 위한 유일한 행동원칙으로서 그 진수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다.

기자: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사상과 업적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의하여 계승발전되였으며 우리 겨레는 통일은 우리 민족끼리라는 력사적인 6. 15통일시대를 맞이할수 있었다.

엄세룡: 옳은 말이다. 6. 15북남공동선언과 10. 4선언의 근본정신과 기초도 바로 7. 4공동성명이다.

성명이 발표된 때로부터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하여 새로운 전환적국면에 들어서게 되였다. 이 조국통일3대원칙은 통일문제를 겨레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해결해나갈수 있는 방도를 환히 밝혀주고있는것으로 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실천투쟁에서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립증되였다.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통하여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근본핵으로 하는 6. 15공동선언이 제시되고 그에 뒤이어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 4선언이 채택된것은 조국통일3대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또 하나의 빛나는 성과이다.

온 겨레는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리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 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못해낼 일이 없으며 조국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갈수 있다는것을 확신하게 되였다.

기자: 그러나 우리 민족의 통일열의가 높아질 때마다 미국은 거기에 찬물을 끼얹고 조선반도정세를 긴장시켜왔다. 이것은 미국이야말로 조선의 분렬을 추구하는 기본장본인이며 조선반도평화의 파괴자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엄세룡: 실지 미국은 우리 민족의 통일열의가 높아질 때마다 정세를 긴장시키였다. 7. 4공동성명이 발표되여 통일열기가 높아지자 괴뢰들을 부추겨 《한장의 종이장을 믿을수 없다.》는 망발을 불어대며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벌리도록 하였으며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았다.

뿐만아니라 남조선괴뢰들은 최근 몇년간 북남공동선언들에 배치되는 대결정책을 들고나와 외세와 함께 반공화국대결소동에 피눈이 되여 날뛰면서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놓고 《키 리졸브》, 《독수리》 등 미국과의 각종 군사연습으로 전쟁광기를 부리며 북남관계를 최악의 상태로 내닫게 하고있다.

오늘 우리앞에는 의연히 엄중한 장애가 조성되고있다.

현정세는 온 겨레로 하여금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을 근본초석으로 삼고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의 기치,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높이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조국통일의 결정적열쇠는 우리 민족끼리에 있다.

* * *

면사포는 이미 거덜이 났다

조선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된지 61년이 되여온다.

그러나 미국은 지난 세기 50년대에 조작해낸 《유엔군사령부》의 간판을 오늘까지 도용하여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강점과 전쟁책동을 추구하고있다.

《유엔군사령부》는 원래 유엔성원국들의 총의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이 유엔의 이름만 도용해온 부당한 기구이다.

유엔헌장 제7장에 따르면 주권국가에 대한 집단적무력행사는 반드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승인에 의해서만 허용되게 되여있다.

미국은 1950년 7월 조선전쟁과 관련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회의가 소집되기 전에 일방적으로 저들의 공군과 해군무력을 동원하였다. 6월 25일에 벌써 미국은 저들의 비행대들을 대대적으로 출격시켜 공화국북반부지역에 대한 군사작전을 시작하였다.

1950년 당시 쏘련정부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전문을 보내여 유엔헌장에 어긋나게 리사회의 상임리사국들인 쏘련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지지가 없이 채택된 그 결의들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 회의에서 조선전쟁에 유엔성원국들이 무력을 파병하고 그 무력을《미국지휘하의 〈련합사령부〉》에 소속시키며 그 사령부가 《유엔기발을 사용》하도록 할데 대한 결의를 조작해냈다.

이 《결의안》에는 《유엔군》을 조직파견한다거나 《유엔군사령부》를 설치한다는 표현조차도 없었다. 그러나 미국은 이 《결의》가 《유엔군》조직의 법률적기초나 되는듯이 떠들어대면서 제 마음대로 일본 도꾜에 있는 미극동군사령부를 《유엔군사령부》로 변신시켰으며 조선전쟁에 투입되는 미군과 추종국가군대들을 《유엔군》으로 둔갑시켜놓았다.

미국이 고안해낸 《유엔군사령부》가 유엔이 관할하는 기구가 아니라 순전히 미국의 전쟁도구라는데 대하여서는 전 유엔사무총장들도 공식 인정하였다.

1998년 12월 당시 유엔사무총장 코피 아난도 미국이 조선전쟁에 파견한 무력이나 그 사령부에 대해 《나의 선임자들중 그 누구도 유엔의 이름과 결부시키도록 그 어느 나라에도 허락한것이 없다.》고 까밝혔다.

새 세기에 들어와서도 이러한 주장이 제기되였다. 2004년 7월과 2006년 3월 유엔대변인은 《〈유엔군사령부〉는 유엔의 군대가 아니라 미국이 주도하는 군대》라고 확인하였다.

《유엔군사령관》을 임명할수 있는 권한도 유엔이 아니라 미국정부가 가지고있으며 《유엔군》의 면사포를 쓰고있는 남조선주둔 미군의 축감이나 증강문제도 유엔이 아니라 전적으로 미국정부가 결정한다.

지난 조선전쟁때 미국이 추종국가들의 병력을 끌어들이고 그에 대한 지휘권을 저들이 행사할 목적으로 조작해낸 전쟁도구인 《유엔군사령부》는 전후에도 존재할 명분이 없다.

하기에 세계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이 《유엔군사령부》조작의 비법성과 그 해체의 절박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도이췰란드신문 《디 타게스 짜이퉁》과 카나다세계화연구소는 인터네트홈페지들에 《유엔군사령부》의 창설과 존재자체가 유엔헌장의 위반으로 된다고 주장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유엔군사령부》가 16개 성원국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무슨 방어장치역할을 한다느니, 미국남조선《련합사령부》와 남조선강점 미군과 함께 조선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느니, 《유엔군사령부》 해체는 유엔으로서도 바라지 않는다느니 하며 떠들고있다.

오늘 조선반도정세가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심각한 국면에 처해있게 된 원인은 《유엔군사령부》의 면사포를 쓴 남조선강점 미군에 있다.

《유엔군사령부》는 이미 유엔총회로부터 해체선고를 받은 시대의 오물이다.

미국은 국제사회의 정당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이미 거덜이 난《유엔군사령부》를 지체없이 해체하여야 한다.

본사기자

판이한 두 모습

도이췰란드와 일본은 제2차세계대전시기 동맹국이였다.

이 두 나라는 제2차세계대전 종결과 함께 인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죄악에 찬 범죄의 력사를 꼭같이 기록한 두 나라가 과거를 대하는 오늘날의 태도는 너무나도 판이하다.

도이췰란드는 이미전에 전쟁책임을 국가의 명의로 공식 인정하고 사죄하였다. 그것도 순수 말로써가 아니라 실지 행동으로 속죄의 마음을 보여주었다. 도이췰란드는 전후 첫 시기부터 피해국들과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과거범죄에 대하여 반성하고 사죄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꾸준히 진행해오고있다.

배상은 사죄의 물질적표시이다.

이 나라는 2000년에 《추억, 책임 및 미래》기금을 창설하고 2006년까지 국제비정부기구들과 함께 100여개 나라의 160만명의 이전 강제로동피해자들에게 4조 3 370억€를 배상하였다. 그후에도 외무성이 해마다 의회앞에 기금의 사업정형을 통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감독하면서 피해배상을 중단함이 없이 계속하여왔다. 하여 제2차세계대전시기 나치스정권밑에서 강제로동에 내몰린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한 배상금지불을 2010년까지 전부 끝냈다.

도이췰란드는 이미 제1차세계대전 배상금지불까지도 완료하였다. 국제사회는 한결같이 도이췰란드가 과거범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수십년동안 그에 대한 배상을 해온것은 다시는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정치적의지로부터 나온것이라고 보고있다. 실지 그렇다. 과거범죄에 대한 배상을 하는것은 회피할수 없는 의무라는것이 도이췰란드의 립장이다.

도이췰란드가 죄의식을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화해를 도모하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떳떳하게 살아나가기 위해 노력하고있는 이렇듯 성근한 태도는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고있다.

침략력사에 대한 도이췰란드의 이러한 솔직한 태도와 립장에 비해볼 때 같은 전범국인 일본은 너무나도 대조적이다.

일본은 과거범죄에 대해 배상은 고사하고 인정조차 하지 않고있다.

언제인가 일본을 방문하였던 전 도이췰란드대통령은 이렇게 말한적이 있다.

《과거에 대한 솔직한 인정이 신뢰를 조성하는데서 중요하다.》

죄를 지었으면 잘못을 느끼고 빌어야 한다.

이것은 인륜도덕이고 국제법적요구이며 관례이다.

사실 일본이 범한 죄악은 도이췰란드에 못지 않다. 어떤 측면에서는 그를 훨씬 릉가한다. 일제가 우리 나라에서 감행한 랍치, 강제련행범죄는 야만성과 악랄성에 있어서 인류력사의 어느 갈피에서도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다.

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840만여명을 강제련행, 랍치하고 100여만명을 학살하였다. 특히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강제련행, 랍치, 유괴하여 일제침략군의 성노리개로 만들었다. 일본군 성노예생존자들은 지금도 일제에 대한 원한의 피값을 받아내기 전에는 죽어도 눈을 감을수 없다고 울분을 토하고있다.

그러나 일본은 피해자들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살아있는 속에서도 충분한 증거자료가 부족하다느니, 이미 해결된 문제라느니 뭐니 하면서 그 책임에서 벗어나보려고 모지름을 써오고있다.

일본당국자들은 《썩은것은 뚜껑을 덮는다》는 말을 자주 입에 올리군 한다. 일본은 이렇게 자기 나라의 속담까지도 더럽게 악용하면서 죄악에 찬 과거를 력사의 흑막속에 영영 묻어버리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있다.

오죽하면 일본의 손우동맹자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곳곳에 일본의 과거 성노예범죄를 고발단죄하는 비석들이 련이어 세워지고있겠는가.

일본이 과거청산을 한사코 회피하며 력사외곡놀음에 열을 올리고있는것은 재침책동을 다그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일본은 세계민심을 똑바로 알고 과거죄행을 가리우기 위해 더는 오그랑수를 쓰지 말아야 한다.

본사기자

유모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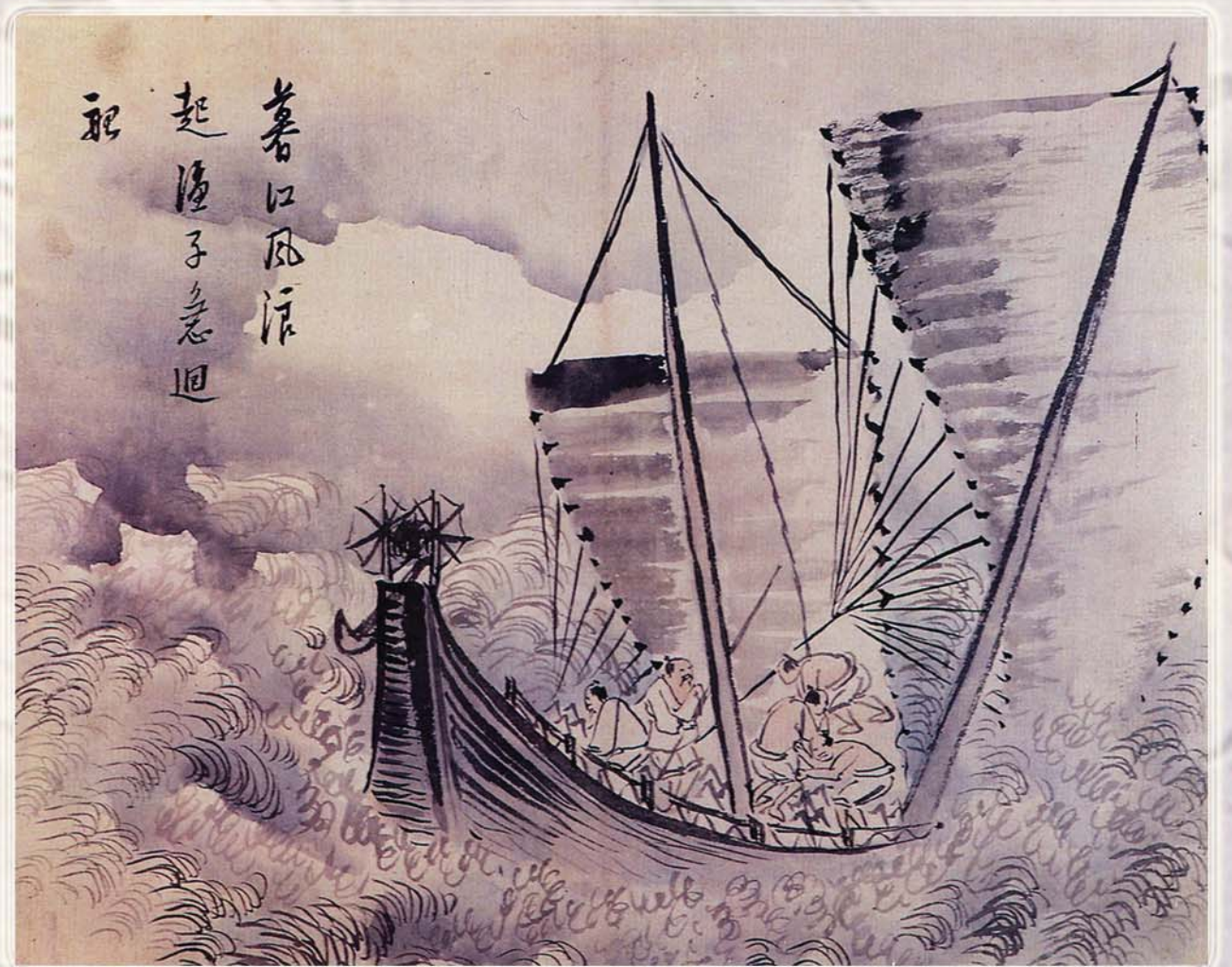
끝없는 욕심

어떤 사람이 남의 집 대문을 두드리더니 문여는 사람을 보고 다짜고짜로 《당신이 오늘아침 얼음구멍에서 우리 아들을 구해냈지요?》하고 물었다.

《그래요, 선생님!》

그는 아주 겸손한 태도로 대답했다.

《내 아들의 모자는 어디에 있소?》

고화

《풍랑을 헤치고》

고화 《풍랑을 헤치고》는 조정규가 그린 그림이다.

그는 물고기와 게를 잘 그려 이름났으며 산수화와 인민들의 로동생활을 반영한 인물화도 많이 그렸다.

《풍랑을 헤치고》는 뜻하지 않게 풍랑과 맞다든 어부들이 사나운 파도와 싸우고있는 모습을 형상한 그림이다.

먹장을 갈아 부은듯 한 시꺼먼 구름이 하늘을 뒤덮으며 광풍을 몰아오더니 잔잔하던 물결은 삽시에 세찬 격랑으로 변하였고 파도속에 잠겨 균형잃은 투대박이돛배는 바람부는대로 이리저리 뒤흔들리고있다.

휘몰아치는 바람앞에 돛대마저 부러질듯 휘여들고 물보라가 갑판에 마구 뿌려지는데 다섯명의 어부들은 웃옷을 벗어던지고 위급한 정황에서도 당황함이 없이 자연의 광란을 짓부시며 억세게 싸우고있다.

거칠고 힘있는 선묘로 묘사한 파토, 피우기법으로 그린 군청색의 물과 구름, 먹색으로 처리하여 두드러져보이게 한 배 등은 서로 조화되여 스산한 분위기를 돋구어 보여주고있다.

긴박감과 억세임을 함께 느끼게 하는 화면이다.

*　　　*　　　*

축포가 오른다.　　본사기자 최원철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 축포가 터져오른다, 전승광장의 축포 이런듯.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한 그날의 그 기쁨과 환희를 오늘도 전하는듯 승리의 축포, 영광의 축포는 밤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끝없이 터져오른다.

ISSN 1727-9062
9 771727 90600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ㄱ—482136
http://www.naenara.com.kp(조문, 로문) 전자우편(E-mail): flph@star-co.net.kp